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www.clas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미국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수가 15일 6만명이 넘어섰다.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매사추세츠 주내 고위험군 타운 63개로 폭증

지난주 23개 타운에서 40개 타운 늘어  
공립학교 92명 확진, 학교스텝 68명감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내 코로나바이러스 고위험 타운이 지난 주 23개 타운에서 단 1주만에 63개 타운으로 증가했다.

주보건부가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일 동안 인구 10만명당 8명의 확진자 이상이 발생한 타운, 즉 고위험 타운은 보스톤을 비롯해 63개 타운으로 늘었다. 매사추세츠 주정부는 지난주 3단계 스텝 2를 발표하면서 빨간색의 고위험 타운은 3단계 스텝 2 진행에서 제외된다고 밝힌 바 있다.

매사추세츠주는 각 타운의 코로나바이러스 위험수준을 빨강, 노랑, 초록, 하양으로 표시하고 있다. 빨강표시 타운은 인구 10만명당 1일 평균 8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하는 곳이며 노랑은 10만명당 4-8명, 초록은 10만명당 4명 미만, 하양은 14일 동안 5명 미만의 감염자가 발생한 곳이다.

매사추세츠주 10만명당 >>8명으로 계속

## 하버드 전문가, 빠르면 11월 코로나바이러스 폭증 시작

최근들어 겨울 폭증 주장 학자들 다수, 이번에는 구체적 11월 제시  
북반구의 경우 보통 12월 피크, 미국내 감염 많아 한달 앞당겨질듯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이 빠르면 11월달 또는 12월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하버드 감염병

전문가가 밝혔다. <관련기사 13면>  
하버드 TH첸공중보건대학 면역 및 감염병과 연구원인 스티븐 키슬러씨는 북반구의

경우 또 한번의 코로나바이러스 절정이 12월 또는 1월에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기존의 다른 코로나바이러스의 패턴을 따른다면 올해 말에 또 한번의 대유행을 볼 가능성이 크다”고 보스톤글로브는 그의 말을 인용해 14일 보도했다. >>8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보스톤 코리아

코로나 사태  
여러분과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PREMIER REALTY GROUP  
BOSTON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Korea licensed  
Multi -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bostonpremierrealty.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21 CENTURY 21

주택 | 콘도 | 커머셜  
성실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일린 박**  
CENTURY 21  
REALTOR

www.BostonParkRealty.com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아리랑랩소디)와 <고향의 봄>을 바이올린 김현정(음악감독), 이해민, 비올라 권오현, 첼로 조재형, 피아노 김정림의 오중주로 연주했다

# 필하모니아 보스턴 챔버오케스트라 영상연주 <고향생각> 발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도 끊임 없이 영상 연주회를 열고있는 필하모니아 보스턴 챔버오케스트라(대표 장수인)가 3번째 연주곡인 <고향생각>을 14일 발표했다.

“고향생각(Nostalgia)”이란 타이틀로 포스팅한 이번 영상연주회에서는 바이올린 김현정(음악감독), 이해민, 비올라 권오현, 첼로 조재형, 피아노 김정림으로 구성된 5중주단이 ‘아리랑랩소디’와 ‘

고향의 봄’을 소개한다. 단원들은 한국방문중에 모여 이번 연주회를 녹음해 최고의 음향으로 아리랑과 고향의 봄을 선사한다. (<https://youtu.be/dhKLJxc1Us0>)

아리랑랩소디는 현대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영화음악감독으로 겨울연가, 실미도, 올드보이 등 수많은 영화음악 OST를 만들어낸 이지수씨의 작품으로 아리랑랩소디를 통해서 밀양아리랑이 새롭게 재구성되어 더욱 풍요롭고 화려하며 세

련된 분위기를 구현하였다.

작곡가 이지수에 따르면 아리랑랩소디는 전통 아리랑의 변화 가능성을 최대한 시도한 작품으로 한국 전통리듬과 서양음악의 다양한 화음진행이 최대한 조화롭게 어우러진 현대판 아리랑의 재현이라 볼 수 있는 흥미로운 곡이다. 깊어가는 뉴잉글랜드의 10월, 가을과 함께 고향의 음악으로 가을정취를 음미한다.

<https://www.philharmonia-boston.com>

#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연례 모금 18일 온라인으로

## 10월 18일 온라인으로 진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2012년에 설립되어 한국 전 통문화를 보스톤 사회에 소개하고 젊은 예술가들을 후원해 온 한미예술협회가 제9회 연례 모금 행사를 갖는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모금 행사에는 뉴욕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의 아티스트’로 선정된 공예가 명을소씨가 참여하며, 해마다 진행되던 사일런트 옥션(silent auction)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10월 14일~18일). 예년처럼 많은 미술가들이 옥션에 작품을 내놓았으며, 이재욱 작가가 옥션 책임자로 수고하게 된다.

2021년의 조던홀 콘서트에 출연할 바이올리니스트 장유진, 첼리스트 브랜던 조씨가 온라인으로 동참하여 연주를 들려줄 예정이며, 뉴욕 클래식 플레어즈의 음악감독인 김동민 지휘자도 참여할 계획이다.

예술협회의 김병국 회장은 “이번 해에 진행하지 못한 행사의 대부분이 2021년에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힘들어진 올해, 예년보다도 더 많은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후원금은 세금 면제가 가능하며 앞으로의 문화 행사와 예술가 지원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예술협회의 정정욱 이사장은 보스톤과 인근 지역의 한인들이 온라인 모금의 자리에서 즐겁고 뜻있는 시간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10월 18일(일) 오후 7시 반에 시작되는 모금 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info@kcs-boston.org](mailto:info@kcs-boston.org)로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자세한 정보는 [kcs-boston.org](http://kcs-boston.org)에서 볼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mailto:bostonkorean@hotmail.com)

**<진료 과목>**

-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http://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mailto:Steven@stevenkimlaw.com)

# SBA 5만불 이하 PPP 신청자 사실상 전액 탕감

## 신규 급여보호프로그램 탕감 신청서 발표 3508S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5만불 이하의 스몰비즈니스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 신청 사업체들은 사실상 거의 전액을 탕감받게 된다.

미 재무부와 중소기업청은 5만 불 이하의 급여보호프로그램 신청 사업주들에게 간편하게 탕감을 신청할 수 있는 새로운 지침을 지난 주 8일 발표했다.

급여보호프로그램의 대출은 모든 비용을 급여, 렌트, 유틸리티, 모기지 이자 등으로 사용한 경우 탕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종업원 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급여 비용이 60%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탕감의 가장 큰 조건이었다.

그러나 5만불 이하 대출 사업주들의 경우 자신의 종업원 수가 대출신청 당시와 비교해 탕감신청서 신청 당시에 줄었거나 감봉했거나 상관없이 60% 이상을 급여로 사용했을 경우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사업주들은 약 1페이지에 달하는 3508S 양식을 작성하면 되며 복잡한 계산을 할 필요없이 대출 번호와 대출 금액 종업원 수 등만을 기입하고 나머지 항목에는 이니셜을 기입하면 된다. 탕감 금액에 대한 계산이 따로 없으며 SBA는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사업주들은 은행에 새로운 탕감 프로그램 신청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알아보고 탕감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김창근 회계사는 “일부 5만불 이하의 사업체들은 941양식과 함께 은행에 제출하고 있다. 한인업체들도 은행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알아보고 신청하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상당수 은행들은 5만 불 이하 탕감신청서를 받는다는 공식 통보를 하고 있지 않지만 조만간 이에 대한 통지가 전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월 백악관에서의 기자회견에 참가한 조비타 카렌자(Jovita Carranza) 중소기업청 청장

다만 아직까지도 이번 대출 금액이 세금 부과 대상이 될 것인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 블루벨의 공인 회계사 데이비드 잘레스는 “5만 불 이하 대출금은 100% 탕감이 가능하지만 세금의 감면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 며 이를 위해서는 신규 부양안에서 이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PPP론의 세금문제가 복잡한 이유는 각종 지출, 세금 원천징수(Withholding)의 비용처리는 2020년에 이뤄지지만 실제적으로 이번 대출이 소득으로 잡히는 시간은 2021년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당초 탕감 금액 한도는 15만

불 이하로 논의됐으나 SBA는 8일 5만불로 제한했다. 이유는 신규 규정으로 인해 PPP 대출자 68%에 달하는 3백50만 사업체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그럼에도 이들의 대출 금액은 전체 PPP의 12%에 불과한 6백20억달러에 불과해 비중이 아주 낮기 때문이다.

## 추석엔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행사기간: 9/4(금) ~ 10/4(일)



요즘이니까  
**면역력**  
추석이니까  
**정관장**

요즘처럼 면역력이 소중한 때가 없습니다.  
추석처럼 정관장이 반기를 때가 없습니다.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추가증정



**3+1**  
자녀제품 1박스 구입시  
10포 추가 증정



\$250 이상 구입시  
홍삼원골드 1박스 증정



**최고의 홍삼제품으로  
가족의 면역력을 지켜주세요!**

원료 관리 단계부터 제조, 제품의 완성 단계까지 8년의 시간동안 290여 가지가 넘는 항목의 안정성 검사를 7회에 걸쳐 시행합니다.

**면역력의 힘! 정관장 홍삼**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전화로 주문후 집에서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 베이커 주지사 렌트 보호 계획 강제추출 막을까

## 구제프로그램 렌트 지원 4천불서 1만불로 증액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매사추세츠 강제추출 중단이 17일 마감되면서 발생하는 대량 강제추출 사태를 방지하고자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1.71억달러의 강제추출 구제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베이커 주지사는 강제추출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1억달러를 긴급히 렌트보조프로그램(RAFT)에 투입, 렌트비 지원금을 과거 \$4,000에서 연당 \$10,000로 끌어올렸다.

주지사는 또한 홈리스 방지와 카운슬러, 변호사, 중재자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해 세입자와 집주인이 서로 협력해 강제추출을 막도록 했다. 주 주택법원 판사들은 은퇴 판사들을 재고용해 강제추출 신청건의 진행을 돕고 중재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다.

3월 이래 40만명이 일자리를 잃은 상태에서 주정부는 그동안 미국내에서 가장 강력한 강제추출 금지법안을 시행해 주택 및 상업용 등 모든 종류의 강제추출을 금지해왔다.

그러나 10월 17일까지 연장됐던 강

제추출 금지법안은 집주인들의 강력한 항의로 인해 더 이상 연장하지 못하게 됐다. 집주인들은 세입자들에게 무료로 집을 제공한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 판사는 이 법안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이 법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태이기 때문이었다.

베이커 주지사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은 렌트비 납부가 어려운 세입자들과 가정들에게 재정적 시련을 주고 있다”면서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들의 편의를 비롯해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 및 집주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베이커 주지사의 신규 프로그램으로 매사추세츠에 다칠 강제추출 바람을 잠재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매사추세츠 커뮤니티액션네트워크의 루핀퍼 대표는 “1억달러는 엄청난 금액이지만 팬데믹으로 나빠진 경제상황에서 필요한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주 매트로폴리탄에어리어플



매사추세츠 강제추출 중단이 17일 마감됨에 따라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1.71억달러의 강제추출 구제프로그램을 제시했다

래닝카운슬(MAPC)은 10월들어 4만5천 실업자가 구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렌트비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서류미비자 등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까지 더해지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전문가들은 주택법원이 문을 여는 경우 수십만 건의 강제추출 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건물소유주 그룹을 포함한 광범위한 주택 관련 전문가들은 지난 주 렌트비보조(RAFT) 1.75억달러를 포함한 총 2.15억달러의 대책을 요구했다. 주정부가 제시한 렌트비보조는 이에 못미칠뿐만 아니라 이미 3천만달러는 기존의 주 예산에 할당되어 있었던 금액이라는 게 한 전문

가의 지적이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현재 매사추세츠 아파트 렌트 시장이 불황인 상태이고 렌트보조 프로그램으로 건물주들은 더 많은 집세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면 세입자들을 추출하기 보다는 유지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연방질병통제센터가 올해 말까지 질병 확대를 이유로 강제추출 중단조치를 취한 것도 일부 효력이 있으며 보스톤의 경우 25개 대형 건물주들이 강제추출을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어느 정도 강제추출 대란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C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상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 서울장터

## SEOUL JANGTEO

서울 유명호텔의 중화요리 Chef 를 초빙하여 뛰어난 맛으로 보답합니다.

깊은맛의 국밥은 오랜 향수를 달래줍니다.

대표메뉴

- 순대국밥
- 돼지고국밥
- 소고기국밥
- 짜장면/짬뽕
- 탕수육/깐풍기
- 양장피/팔보채



151 Brighton Ave. Allston, MA 02134 | (617) 254-2775  
(구) 북경 in Allston

# 왜 미국 전역에서 MA 주민투표 1번을 주목할까

## 소비자를 생각한다면 주민투표안 1번 대답은 찬성

(보스턴=보스톤코리아) 정명술 기자=매 선거 때마다 실시하는 매사추세츠 주민투표는 비교적 결정하기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처럼 주민투표안을 막판까지 고민하게 되는 경우는 없었다.

특히, 대형 자동차 회사는 물론 다양한 자동차 수리점 연합 등이 강력한 광고전을 벌이면서 미국내에서 가장 뜨거운 주민투표안으로 자리잡고 있는 주민투표 1안은 도무지 들어도 실체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1번 주민투표안을 좀더 신중하게 알아보아야 하는 이유다. 이번 주민투표안은 자동차 제조사들의 기존 수리데이터에 더해서 무선 테크놀로지 즉 텔레메틱스(telematics)까지 일반적인 자동차 수리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8년전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주민투표를 통해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일반 독립적인 자동차 수리점들에게도 차량 수리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의무화 했었다. 제조사들이 수리정보를 독점하는 경우 소비자들은 반드시 비싼 딜러 정비소에서 차를 정비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일반 수리

점들도 수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사물인터넷과 무선통신기술, GPS 등이 발달하면서 제조사가 자동차 수리를 독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상황이 발생했다. 제조사들은 차량에서 발생하는 기계적인 데이터를 단독적으로 수집해 차량에서의 안전운전, 오락, 금융서비스, 예약 및 상품구매까지 연결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텔레메틱스(telematics)의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도요타 차량의 브레이크 패드가 거의 마모되어 갈 때 차량은 제조사에 이 마모정보를 통보하고, 제조사로부터 이 정보를 받은 근처 딜러는 이 운전자에게 브레이크 패드 쿠폰을 발행하면서 차량 수리를 권장하게 된다. 제조사가 수리까지 독점하게 되는 과정이다.

텔레메틱스의 미래가 전 미국 및 세계의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사추세츠 주민투표안에 미국 전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Auto Care Association은

자동차 안전자동차인터페이스(Secure Vehicle Interface) 채택을 원하고 있다. SVI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네트워크가 차량의 모든 텔레메틱스를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조사들은 자신들의 텔레메틱스 시스템을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지만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정보를 주지 않았었다. 차량 소유자들이 SVI앱을 통해 이 데이터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면 자신이 원하는 수리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주민투표 1안은 이 같은 SVI를 매사추세츠에서 의무화 하는 것이다. 주민투표 1안이 통과되면 제조사들은 내년 모델인 2022년부터 이 SVI 호환 차량으로 만들어야 한다. 세계의 모든 차량들은 이미 2022년 차량의 엔진니어 구조를 이미 마쳤기 때문에 불과 1년 사이에 텔레메틱스 소프트웨어를 뜯어내서 SVI와 호환되도록 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하다. 서두르는 경우 차량결함이나 해킹에 쉽게 노출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제조사들은 이 경우 2022년 모델의 매사추세츠 판매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 매사추세츠 관



매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한 주에서만 운영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결국 미 전역의 표준으로 채택해야 할 수밖에 없다.

1번 "차량 수리 권리" 를 선택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 제조사만 차량의 기계적인 정보를 보유한다는 것은 딜러 정비업체에게 일반 정비업체들보다 유리하도록 하고 결국은 딜러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높은 가격이란 불리한 요건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차량의 소유주와 리스한 사람들에게 정보접근권을 주어 자신의 차량을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권리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주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어 이 부분은 의회가 법 제화를 통해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보안문제다. 미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은 1번

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주민투표안은 사이버시큐리티 위험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해커나 악의적인 사람의 경우 차량에 무선 차량 시스템에 접근해 급가속이나 브레이크 등을 통제함으로써 대형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같은 경우 테슬라 등 자율주행 차량은 해커들의 무기로 변질될 수 있다.

이 주민투표안에 따라 모빌앱(SVI)을 만들어 데이터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킹에 더욱 노출될 수 있겠지만 제조사만이 정보를 보유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가능성이 존재하는 위험이란 반대 논리도 가능하다.

따라서 주민투표안이 통과되면 의회는 이 무선 모빌앱을 규제하고 자동차 연결이 좀더 안전하고 보안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다.



# 서울설령탕

##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령탕의 피자,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n Beacon Hill  
155 Cambridge St, Boston  
617.873.8680  
SeoulFoodBoston.com



# 가주 순두부

캔모어 지점 그랜드 오픈

영업시간 : 오전10시~ 밤10시까지

# KAJU

Korean Gourmet Food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캔모어 지점  
**636 Beacon St.**  
Boston, MA 02215  
**(617) 936-4252**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백악관과 민주당은 14일에도 코로나바이러스 경기부양책에 대한 협상을 계속 이어갔지만 선거전 타결전망은 아직 분명치 않아 보인다. 펠로시 하원의장과 므누신 장관(우)

# 펠로시와 므누신 부양책 협상은 계속 타결전망은 흐림

## 므누신 선거전 타결전망 어렵다면서 펠로시 의장 압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백악관과 민주당은 14일에도 코로나바이러스 경기부양책에 대한 협상을 계속 이어갔지만 선거전 타결전망은 아직 분명치 않아 보인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1시간 가량의 통화를 통해 부양책의 세부조항을 논의했으며, 의도된 프로그램에 자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데 협상을 집중해 비교적 생산적인 대화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2.2조달러에서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상원 공화당은 백악관이 제시한 1.8조달러 규모의 부양책이 너무 크다며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원하는지 혼동스런 메시지를 남발하고 있는 등 각각 따로 움직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펠로시 의장의 드루 햄필 대변인은 “가장

큰이전중의 하나는 백악관이 미국의 전략적 진단검사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트윗을 통해 말하고 “우리의 경제와 학교를 빨리 안전하게 재개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략적인 검사계획이 필요하다는 과학자들의 주장을 따라야 한다고 펠로시 의장은 생각한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펠로시 의장과 통화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부양안 규모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자금이 쓰여질지에 대한 정책 측면에도 양측의 간격이 크게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므누신 장관은 “하원의장이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방식의 접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현재의 협상 진행상황과 세부논의 수준을 놓고 볼 때 선거 전까지 타결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특히 주 및 지방정부 지원에 있어 민주당은 4천360억달러를 원하지만 백악관은 3천억

달러를 원한다. 므누신 장관은 이 금액만 해도 엄청난 양이라며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빌 포스터 민주당 의원은 규모뿐만 아니라 이기금의 할당에 측면에서 조심스런 입장이라고 의회전문지 더힐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공화당 측이 케어스 법안에서 공화당 우세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부조항을 교묘히 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양책은 세부조항이 정말 중요한 법안”이라며 포스터 의원은 “와이오밍이나 몬타나의 작은 타운이 일리노이의 작은 타운에 비해 5배나 더 많은 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사업체와 학교 등 바이러스에 감염된 근로자나 학생들이 소송할 때 손배소를 면제하는 조항에 대한 세부적 규정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완고하게 면책 조항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같은 지속적인 의견의 엇갈림은 조기 협상 타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는데 더해 협

상에서 한결음 물러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는 의회에 대규모 부양책을 요구하다 갑자기 협상중단을 선언하고 또 협상재개를 요구하다 단독안으로 가지고 주장했다. 이후 전면적이고 대규모 협상을 요구하면서 1.8조 달러 규모를 제시하는 등 오락가락 갈피를 잡기 힘들게 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낸시 펠로시 의장에 대한 공격을 늦추지 않았다. 그들은 낸시 펠로시 의장이 트럼프에 승리를 안기고 싶지 않아하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선거전 타결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므누신 장관도 이같은 측면이 “분명한 문제”라며 낸시 펠로시 의장의 정치적 의도에 의심을 던졌다.

민주당 측은 이미 두차례나 하원 안을 통과시킨바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기는게 싫어서라는 주장에는 손사래를 치고 있다. 그러나 낸시 펠로시 의장에게 정말 그런 의도가 없는지는 향후 타결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 공인 회계사

정진수

CPA / MBA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 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채표 작성
- ▶ 급여(Payroll) 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 공인 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성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 도널드 트럼프 1.8조 규모 부양책 제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 경기부양책 규모를 1.8조달러로 늘려 민주당에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극우 보수성향 러시 림보가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나는 솔직히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제시한 것보다 더 큰 부양책을 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서도 "코로나 부양책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대규모 가 될 것이다(Go big!)"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날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30여분간 통화를 하고 경기부양책 규모를 기존의 1.6조달러에서 1.8조달러로 증액해 제안했다고 전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도 소식통들을 인용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더힐에 따르면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므누신 장관과 펠로시 의장의 통화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양책의 수정안에 동의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다만 그는 펠로시 의장과 므누신 장관이 부양책 협의를 위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당초 지난주에 경기부양책의 총액을 1.6조달러로 제시했고, 민주당은 2.2조달러를 제안한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백악관의 1.8조 규모의 신규제안은 기존과 조금 다른 내용을 담고있다. 주 및 지방정부 지원을 2천5백억달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경기부양책 규모를 1.8조달러로 늘려 민주당에 제시했다

3천억달러로 늘렸다. 추가실업급여를 주당 \$400로 유지했지만 지난 제안에서 12월 31일로 제한했던 기간을 더 늘렸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부양 수표 자녀 지급분을 \$500에서 \$1,000로 늘렸다는 점이다. 백악관은 민주당 측의 자녀세금 크레딧에 대한 타협책으로 자녀지급 금액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부양안의 규모는 비록 약 1.9조에 가깝지만 실제로는 지난 케어스법안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4천억달러를 재사용하기 때문에 실제규모는 1.5조달러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협상 중단 선언 중에서도 계속해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과 협상을 이어왔던 펠로시 하원의장은 9일 므누신 장관과의 협상 직전 MS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인들의 절박한 지원 상황에 부합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곧 협상을 타결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에 감염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한 이후 경기부양책 협상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퇴원한 지 하루 만인 지난 6일 민주당과의 경기부양책 협상중단을 시사했다고 밝혔다가 이틀 뒤 방송 인터뷰에서는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며 협상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를 거부할 것을 이미 알고 현재 좀 과장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언론들은 대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의 신뢰성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 모두 회의적인 상황이다. 그럼에도 미국 경제 하락의 심각성이 여겨져서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해볼 수 있다.

hsb@bostonkorea.com



찰리 베이커 주지사가 자신의 같은 당 소속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 공화당 소속 베이커 주지사 같은 당 트럼프에 투표안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찰리 베이커 주지사가 자신의 같은 당 소속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밝혔다. 다만 그는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베이커 주지사는 주청사에서 1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11월 3일 대선에서 어떻게 투표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지만, 같은 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베이커 주지사 사무실은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으며 현재는 매사추세츠의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 전념해야 한다. 선거에 대한 분석은 정치평론가들에게 맡기겠다"고 밝혔다.

베이커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해온 공화당 인사 중 한 명으로, 2016년 선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투표하지 않겠다고 밝힌데 이어 2020선거에서도 마

침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패배하면 평화로운 정권이양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베이커 주지사는 "선거에서 지는 경우 단 한순간이라도 정권이양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은 말도 안되며 경악할만한 일. 말이 필요없다"라고 비난했었다.

베이커 주지사는 지난달 별세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 지명을 놓고도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다. 그럼에도 베이커 주지사는 최근까지 지지 여부를 명확히 언급해오지 않다가 대선이 다음달 3일로 다가오면서 같은 당 소속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지난 8월 필 스킷 버몬트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을 포함해 공화당 거물급 인사가 줄줄이 등을 돌리고 있다.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 에서 민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판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께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슈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로, 현 점수 및 경리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Michelle Han CPA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 아이키아, 블랙 프라이데이 대비 자사 중고가구 구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DIY 가구점 아이키아(Ikea)가 27개 나라에서 중고아이키아 가구를 되사들이고 있다. 스웨덴에서 출발한 다국적 가구점 아이키아는 올시즌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를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열 계획이며 “순환 경제에 공헌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회가 될 것” 이라고 13일 밝혔다. 아이키아측은 중고가구를 되파는 고객들에게 최대 구매가격의 50%를 바우처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아이키아는 가구의 컨디션이나

분해되어야 하는지 여부 등을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다. 회사측은 재사용, 수리 후 판매, 재제조 또는 리사이클링 등 제품의 수명을 어떤 것이 최고로 연장하는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키아는 올해 스톡홀름에 중고 가구점을 오픈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모든 매장에 중고가구를 되사들이고 재수리 된 가구를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 계획이다. 아이키아는 1943년 만들어졌으며 가족들이 우편 주문을 받아 만들던 작은 가구점을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DIY로 가구를 만들 수 있는 공통가

구점으로 변모시켰다. 40여개국에 13만1천명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스토어점 문을 열었으나 상당부분의 매장내 매장을 방문해서 구매하기 힘들다. 따라서 보통은 매장에서 구입할 수 없는 물건들을 인터넷을 통해 주문해야 하며 약 \$50불 가량의 운송비를 지불해야 한다. 특히 아이키아의 배송을 받지 못하는 경우, 스케줄 재조정을 위한 아이키아의 고객센터 전화는 보통 1시간 정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악명 높기 때문에 배송시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 매사추세츠 주내 고위험군 타운 63개로 폭증

▶▶1면에 이어서  
일일 평균 확진자율도 8.7로 증가했으며 보스톤의 일일 평균 확진자율도 지난주 10에서 11.1로 증가했다. 다음은 고위험군 빨간색으로 표시된 타운들이다. Abington, Acushnet, Amherst, Attleboro, Auburn, Berkley, Boston, Brockton, Canton, Chelmsford, Chelsea, Dartmouth, East Bridge-

water, East Longmeadow, Everett, Fairhaven, Fall River, Framingham, Hanover, Hanson, Haverhill, Hingham, Holbrook, Holliston, Holyoke, Hudson, Kingston, Lawrence, Leicester, Littleton, Lowell, Lynn, Malden, Marlborough, Marshfield, Methuen, Middleton, Milford, Milton, Nantucket, New Bedford,

North Andover, Oxford, Pembroke, Plymouth, Randolph, Revere, Rockland, Saugus, Shrewsbury, Somerville, Southborough, Spencer, Sunderland, Tyngsborough, Wakefield, Waltham, Webster, West Newbury, Weymouth, Winthrop, Wobum, Worcester. hsb@bostonkorea.com



# 하버드 전문가, 빠르면 11월 코로나바이러스 폭증 시작

▶▶1면에 이어서  
이 같은 경고는 지난주에는 하버드 TH첸공중보건대학 감염병 역학센터의 핵심 회원인 마이클 미나 박사가 겨울철에 감염 “폭증” 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힌데 이은 것으로 구체적인 시기까지 예측한 것이 다르다. 키슬러씨는 “감염의 폭증은 올해 말인 11월 또는 12월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12-1월보다 대유행이 일찍 시작되는 이유는 현재 다른 시점성 코로나바이러스보다 신종 바이러스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감염되어 있어 전파가 훨씬 용이하기 때문”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스톤글로브는 14일 코비드 출구 전략 (Covid Exit Strategy)의 자료를 인용해 미국 내 44개주와 푸에르토리코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증가세에 있으며 단 버몬트와 메인만 바이러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유행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행위와 기후조건이 동시에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키슬러씨는 말했다.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사람들의 실내

활동이 증가하며 실내에서는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바이러스는 차고 건조한 공기를 선호한다. 플루와 코로나바이러스는 호흡기의 비말과 에어로졸 형태로 퍼지게 되는데 “이 작은 물방울은 상당 시간 공기중에 머물 수 있게 된다. 또한 실험에서 밝혀졌듯이 바이러스는 겨울철의 조건에서 좀더 쉽게 생존하고 전염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는 것이다. 키슬러씨의 이 같은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마이클 미나 박사 외 여러 학자들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었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도 이미 최근 코로나바이러스의 증가세를 인정했으나, 매사추세츠주는 추가 감염 증가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BU의대 카산드라 피에르 교수는 “우리 모두는 대유행이 곧 다가올 것을 인정하고 있다” 며 단지 “이 폭증시기까지 얼마나 남아 있는지 모를 뿐” 이라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향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mw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 10분이면 목 통증 사라지는 초간단 스트레칭

우리몸에서 가장 유연한 동시에 가장 뻣뻣해 지기 쉬운 곳이 어디까요?

안녕하세요. 몬트리올 요가강사이자 유튜버 (YOGA SONG - HAYEON)의 송하연입니다.

지금 한번 본인의 목을 천천히 좌우로, 괜찮다면 원을 그리면서 돌려보세요. 어떠신가요? 잘 돌아 가나요? 아니면 뒤로 돌릴때 뻣뻣하거나 소리가 나시나요?

고정된 자세에서 일을 하다보면 자연스레 굳 어지기 쉬운 목을 그대로 방치하면 심한 목통증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목과 어깨는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구부정한 어깨와 평소 잘못된 자세 또한 목결림과 통증을 야기시키기도 하구요.

저번주에 이어 통증완화 시리즈로 이번주는 목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초간단 요가동작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해요.

최근유튜브 영상에서 Top5 Yoga stretches for Neck stretches를 찾아보시면 오늘 알려드릴 자세를 더 쉽게 따라하실 수 있어요. (유튜브 검색창, YOGA SONG-HAYEON을 검색,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매주 업데이트 되는 요가 필라테스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배울 동작은 Side & Back Neck 스트레칭입니다.

STEP 1.: 앉은 자세에서 오른손을 등 뒤로 가져가고 왼손으로 오른쪽 머리옆면을 지긋이 눌러줍니다.

STEP 2.: 내쉬는 숨에 오른 어깨를 귀에서 멀 게 가져가고 최대한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POINT!: 척추를 곧게 핀 상태를 유지해주시 고 깊게 호흡하며 자세를 유지합니다.

STEP 3.: 이번엔 손을 머리 뒤로 가져가 턱을 가슴쪽으로 당겨뒤의 목을 스트레칭 합니다.

STEP 4.: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의 목도 젠틀 하게 스트레칭 해주세요.

두번째는 Seated Cat Cow pose 자세입니다.

STEP 1.: 들이쉬는 숨에 손을 머리 뒤에서 각 지끼고 팔꿈치를 벌려 가슴을 하늘을 향해 내밀 어줍니다.

STEP 2.: 내쉬는 숨에 턱을 가슴쪽으로 내리 고 등을 둥그렇게 말아 목뒤를 스트레칭해주시 요.

POINT!: 이때 팔꿈치는 바닥으로 무겁게 떨어 뜨립니다.

STEP 3.: 척추의 커브의 느끼며 적어도 3번 이상 반복해주세요. 자세교정과 허리통증완화에도 좋은 동작이니 매일 해주세요.

\*더 많은 동작이 궁금하다면..

STIFF NECK? 비디오를 참고해 따라해보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해 드릴게요. 혹시 더 보고 싶은 영상있으시면 알려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바쁜 일상을 마치고 주 무시기 전에 꼭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피로를 풀어주세요. 매일 10분만 나의 목, 몸 컨디션을 위해 투자하셔도 일주일만에 적지 않은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한주도 건강한 식생활과 꾸준한 스트레칭과 운동으로 더욱 활기차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Yoga-fulness Life) 대표  
유튜브검색창에 'YOGASONG-HAYEON'  
유튜브채널 바로가기 <http://bit.ly/SubscribeToYogasong>




## Janice & Lisa

지식과 경험,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도와 드립니다

**제니스 리**

**978.806.6023**

JLee@OwnNewEngland.com

**리사 리**

**857.294.9760**

LLee@OwnNewEngland.com

**주택 / 건물 / 투자, 원하시는 매물 확실히 찾아드립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Janice & Lisa Team**

COMPASS



Our mission is to help everyone  
find their place in the world.



## Why Compass 왜 컴파스인가?

- 부동산 서비스와 정보기술(IT)을 접목한 프롭테크(PropTech) 기업  
부동산(property) + 기술(technology) = 컴파스 (Compass)
- 부동산 구매자와 에이전트들을 대상으로 상세한 매물 검색과 개인화된 매물추천,  
부동산 거래 관련 상호 커뮤니케이션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통합 부동산 플랫폼 제공
-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5000억원 투자한 회사
- 저스틴 월슨 비전펀드 선임 투자전문가 “컴파스는 주택 구매자와 중개업자를  
연결해주는 차별화된 기술 플랫폼을 갖추고 있어 이 분야에서 입지가 탄탄한 기업”
- 2019년 판매량 기준 보스턴 및 케임브리지 1위 (Source: MLS)
- 750+ Agents in Greater Boston
- Operates in 20 U.S. markets including New York, Philadelphia, Boston,  
LA, Chicago, Washington D.C., Dallas, etc.

## Agent Introduction 에이전트 소개

안녕하세요, 제이슨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성원과 격려로 미국 최고의 부동산 회사인 컴파스와  
함께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부동산 토탈 서비스를 가지고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컴파스에서 제공하는 고객 맞춤형 마케팅 전략과 최고의 정보기술과 함께,  
헌신 (dedication), 믿음 (Trust), 결단력 (Determination) 을 기반으로 고객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거래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ompass 와 함께 차원이 다른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슨 드림



**Jason Jeon** 제이슨 전  
Realtor®  
jason.jeon@compass.com  
617.642.5670

compass.com

## Compass Services

### Compass Concierge 컴파스 컨시어지

컴파스 컨시어지는 셀러에게 무이자로 주택 개선 비용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페인트, 바닥, 스테이징 등  
집 리모델링에 관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의 가치를 최대한 올려 더 빠르고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 Compass Coming Soon 컴파스커밍순

compass.com 에 부동산을 시장에 출시 될 예정임을  
사전에 광고하여, 사이트를 검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과 수요를 창출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Compass Bridge Loan Services 컴파스 브릿지론

컴파스 브릿지론은 최대 6개월의 브릿지대출의 대출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업계를 선도하는  
브릿지 대출 기관인 Freedom Mortgage, Better.com 의  
경쟁력있는 이자율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Compass is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abides by Equal Housing Opportunity laws. All material presented herein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Information is compiled from sources deemed reliable but is subject to errors, omissions, changes in price, condition, sale, or withdrawal without notice. No statement is made as to the accuracy of any description. All measurements and square footages are approximate. This is not intended to solicit property already listed. Nothing herein shall be construed as legal, accounting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outside the realm of real estate brokerage.

# 미국대선 사전투표 열풍... "전체투표 과반 신기록 나올 수도"

## 코로나19 예상여파 상회...우편투표도 증가할 듯 민주 지지자가 더 선호...대선영향·부정선거 주장 속 주목

(서울=연합뉴스)이영섭 기자=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전체 투표의 절반을 넘는 신 기록이 작성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여당인 공화당보다 야당 민주당 지지자들에게서 사전투표 열기가 높은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전투표에 포함된 우편투표 때문에 부정선거가 이뤄질 것이라고 패배 때 불복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대선 20일 앞으로 시점에서 사전투표 참여자들이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고 14일 보도했다.

WP는 현 추세라면 미 역사상 최초로 대선 투표에 나서는 이들의 과반이 선거 당일 전에 한표를 행사하게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대선의 투표 방법은 우편 투표, 조기 현장 투표, 선거 당일 현장 투표로 나뉜다. 사전 투표는 우편투표와 조기 현장투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와중 진행되는 올해 대선에선 선거 당일 감염 우려로 투표소에 가길 꺼리는 사람이 많아 사전투표율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은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 사전투표를 개시한 주들의 상황을 보면 예상보다 투표 열기가 더욱더 뜨겁다고 WP는 진단했다.

지난달 사전투표를 시작한 버지니아에선 이날까지 투표한 사람이 170만명에 육박했다고 현지 선거 분석단체 '버지니아 공공접근 프로젝트'가 집계했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사전에 투표한 버지니아 주민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미시간에선 현재까지 100만명 넘는 주민이 사전투표에 나섰다. 지난 대선 때 이 지역 전체 투표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다.

텍사스의 해리스 카운티에선 사전투표를 개시한 전날 하루에만 지난 대선 때 전체 투표자수의 약 10%에 달하는 주민들이 투표소를 찾았다.

같은 주 트래비스 카운티는 전체 유권자 85만명 중 약 6만명이 사전 투표에 나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조지아주 주민들은 조기 현장투표 첫날인 지난 12일 약 11시간씩 대기해야 할 정도로 투표소에 몰렸다.

선거 자료를 분석하는 '미국 선거 프로젝트(United States Elections Project)' 자료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사전투표한 전국 유권자는 약 1천500만명이다. 이는 2016년 대선 당시 전체 유권자의



미국 버지니아 패어팩스에서 열린 조기 투표에 참가하기 위해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줄을 서 있다

약 10%에 해당하는 수다. 사전투표에 나선 유권자들은 대다수가 민주당 지지자일 것으로 분석된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가 사기라고 주장하며 지지자들에게 선거 당일 투표를 촉구해온 탓이 적지 않다.

실제로 WP와 ABC방송이 투표 가능성이 높은 전국 성인 725명을 상대로 지난 6~9일 벌인 조사 결과, 바이든 지지자 중 64%는 사전에 투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중에선 61%가 선거 당일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캠프 측은 "이미 표를 받아냈다는 것을 안다는 점에는 확실한 이점이 있다"며 사전투표율이 높아질수록 바이든 후보는 아직 표심을 정하지 않은 유권자들을 집중 공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화당 측은 사전 투표에 선 바이든 후보가 앞서지만 선거 당일 역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산 자가진단 코로나 테스트 키트 판매 합니다. 개당 \$50”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 백악관, 3월 증시 대폭락 앞서 보 수 싱크탱크에 위기 '귀뜸'

## 사전 경고 입수한 금융계 큰손들 일제히 '팔자'...대폭락 촉발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앞두고 경제 위기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소수 지지자에겐 사전 경고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 지난 3월 초 미국 주식시장 대폭락에 앞서 금융계의 큰손들이 일제히 팔자에 나선 배경에는 백악관의 사전 경고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참모들은 지난 2월24일부터 사흘간 보수성향 싱크탱크로 친(親) 트럼프 성향인 후버재단 이사진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당시 미국의 방역상황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월25일 경제전문 채널인 CNBC에 출연해 방역 상황에 대해 "물 샬 틈이 없다"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방송 출연이 끝난 뒤 후버 재단 이사진을 만난 커들로 위원장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는 코로나19에 대해 "지금까진 막아냈지만, 앞으로는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간담회에 참석한 후버재단 관계자들은 커들로 위원장의 발언을 향후 전개될 사태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였다.

특히 헤지펀드 투자전문가로서 후버재단 이사인 윌리엄 캘러넨은

헤지펀드 운용사인 애플루사 매니지먼트의 창업자인 데이비드 테퍼 회장에게 간담회 내용을 설명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백악관 인사들도 코로나19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취지였다. 이메일은 애플루사 매니지먼트 직원들에게도 회람된 뒤 다른 헤지펀드 운용사들에게도 전파됐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이 이메일을 접하자마자 투매에 나섰을 뿐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추가 하락에 베팅했다.

당시 다우지수는 24일부터 이틀간 1,900포인트 이상 떨어지는 등 연이틀 3%대 급락 장세를 보였다.

캘러넨의 이메일이 금융계에 전파된 26일에는 다우지수가 장 초반

460포인트까지 오르면서 반등을 시도했지만 결국 100포인트 이상 빠진 뒤 거래를 마감했다.

이후 미국 증시는 하락세를 이어나갔고, 결국 3월9일에는 거래중단 조치까지 동반한 주식 대폭락이 발생했다.

이메일을 작성한 캘러넨은 성명을 통해 "공개된 정보를 전문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담았을 뿐이고, 이메일이 전파된 것은 내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koman@yna.co.kr



# 테슬라, 다음 달부터 7인승 보급형 SUV '모델Y' 생산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운섭 특파원 =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다음 달부터 7인승 보급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생산에 들어간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이러한 계획을 공개했다고 15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매체 비즈니스인사이드가 보도했다.

머스크는 11월부터 보급형 SUV인 '모델Y'의 7인승 버전을 만들기 시작해 12월 초부터 납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7인승 모델Y는 기존 5인승보다 3천달러(344만원) 더 비싸고, 좌석은 3열로 배치된다.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거리는

314마일(505km)이다. 7인승 모델Y의 3열 좌석 배치 방향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역방향 기능을 장착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자동차 전문매체 일렉트릭은 "테슬라가 지난해 모델Y 시제품을 공개했을 때 3열 좌석의 다리 공간이 극히 제한돼 유용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며 3열 좌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역방향 기능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테슬라는 고급형 세단 모델S에도 차 뒷부분에 역방향의 어린 이용 좌석을 배치하는 등 7인승 기능을 선보인 바 있다.

jamin74@yna.co.kr

# 신신마트 당일배송

신신 가을 이벤트  
오뚜기 설령탕 혹은 사골곰탕  
1 FREE \$150.00 or more  
2 FREE \$250.00  
3 FREE \$350.00 or more

**배달 서비스**

**EXPRESS DELIVERY**

각종 고기와 반찬, 쌀, 라면, 야채, 과자 뿐만 아니라 신선한 생선회(Mr. Sushi) 등을 12시 이전에 주문하시면 안전하게 당일 배송해 드립니다.  
\$100불 이상 / 배송비 10불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은 Free Delivery 해드립니다.

가격과 품질에 정직합니다  
정성들여 만든 신신 스페셜

- 얼큰한 해물 짬뽕국물 (\$7.99)
- 순두부 (\$7.99)
- 육개장 (\$9.99)
- 싱싱한 홈메이드 신신만두 (\$25.00) (고기만두, 김치만두)

**ALL 유기농 늘푸른 농장**

- 한국포도 \$19.99/pack, \$36.00/box
- 메주콩, 검정콩 \$29.99/5LB
- 배즙, 포도즙, 대추즙 \$29.99/25packs
- 마른대추 \$29.99/1bag
- 고춧가루 \$69.99/3.8LB

신신마트) 978.686.0813 (매장)  
781.308.2073 (줄리 안), 781.308.2072 (다니엘 안)

케이타링 문의  
한식, 일식, 중식 케이타링 (보스톤 4성급 호텔에 납품하는 허가된 등록업체입니다)  
문의 781.308.2073 (줄리 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사전 투표를 위해 줄을 선 사람들

# 미 하루 신규 코로나환자 6만명 근접...21개주선 환자 최고수준

## 35개주 1주일간 환자, 그 전주보다 증가...월드오미터 기준 누적환자 800만명 넘어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미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재확산하며 하루 신규 환자가 6만명에 바짝 다가섰다.

CNN 방송은 미 존스홉킨스대학 통계를 인용해 14일(현지시간)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5만9천494명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 8월 14일 6만4천601명의 신규 환자가 나온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약 한달 전인 9월 7일 2만4천56명으로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던 미국의 하루 신규 코로나19 환자는 이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최근 1주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환자도 15일 기준 5만2천345명으로 그 전주보다 16% 증가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피터 호테즈 원장은 "이는 매우 불길한 징조다. 우리는 몹시 나쁜 가을과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그리고 현대 미국 공중보건사에서 최악의 시기 중 하나에 돌입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또 이달 11일 이후 21개 주에서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환자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리노이 · 유타 · 웨스트버지니아 · 오리건 · 오하이오 · 와이오밍 · 노스 및 사우스다코타 · 몬테나 ·

네브래스카 · 뉴멕시코 · 인디애나 · 콜로라도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미국의 초기 집중 발병지역이던 뉴욕 · 뉴저지주나 2차 집중 발병지역인 캘리포니아 · 플로리다 · 텍사스 · 애리조나주는 빠지는 대신 다른 주들이 재확산을 이끄는 형국이다.

또 50개 주 가운데 35곳은 최근 1주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환자가 그 전주보다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 환자가 감소한 곳은 루이지애나 · 켄터키 · 버몬트주 등 3곳뿐이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 전염병연구소 소장은 이날 ABC 방송에 출연해 이런 확산을 "매우 우려스럽다"며 "문제는 더 서늘한 가을로, 그리고 결국은 더 추운 겨울로 접어들며 하루 감염의 기저점이 높고, 환자가 감소하기 보다는 반대로 증가하는 위태로운 위치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 집계기관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이날 미국의 누적 코로나19 환자 수는 816만8천998명으로 이미 800만명을 넘었다.

다만 존스홉킨스대는 이날 미국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793만3천656명, 사망자 수를 21만7천220명으로 집계했다.

파우치 소장은 또 미국의 주요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모임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14일 CBS에 나와 "만나서 사람들이 감염되지 않았다고 아주 확신하지 않는 한 이를 악물고 사회적 모임을 희생해야만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조지워싱턴대학의학교수 조너선 라이너 박사도 14일 가까운 가족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과는 실내에서 추수감사절 만찬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sisyphe@yna.co.kr

**MASS-Drain**  
DRAIN & PLUMBING

막힌 곳을 **확** 뚫어드립니다

Professional Plumbing Services and Quality Products at an Affordable Price.

**24/7**

**부엌, 목욕탕 리모델링 전문**  
WATER HEATER, BOILER HEATING, FAUCET

www.massdrain.com | massdrain@gmail.com  
**617.645.6146**

**코로나 사태**  
여러분과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는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중단치 않고 발행합니다. 두꺼운 얼음 밑에서 물은 끊임없이 흐르듯 모든 게 멈춘 순간에도 끊임없이 필수 정보를 전하고 한민간의 네트워크를 연결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광고주들로 인해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이에 따라 독자 여러분께 도움을 호소합니다. 혹 여유가 되는 분들은 보스톤코리아를 도와주세요.

보스톤코리아에 도움을 주실 분들은 아래의 주소로 체크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Payable to : The Boston Korea

보스톤코리아도 어려운 광고주들을 돕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에 연락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editor@bostonkorea.com

# 형제 떡집

모든 종류 떡 주문 가능!

축 재개업

**영업 시간**

딜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 정관계 겨는 옵티머스 수사...핵심 4인방 내홍이 '불쏘시개'

## 들끓는 여론에 밀려 수사 박차...수사팀 확대 · 대통령 지지 책임전가성 폭로 · 내부분건 유출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1 조원대의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팀 인력을 기존의 2배로 늘리는 등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7월 말 옵티머스 주요 경영진과 펀드 설계자 등 5명을 재판에 넘긴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검찰 수사는, 최근 옵티머스 내부 문건 유출로 정·관계 로비 의혹이 확산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형국이다.

하지만 동력을 잃은 듯 보였던 검찰 수사를 되살려낸 건 오히려 펀드 사기를 공모한 옵티머스 4인방의 '자중지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대응 시나리오까지 치밀하게 모의했던 이들이 '각자도생'을 택하면서 시작한 책임전가성 폭로전이 수사에 불을 지폈다는 것이다.

전반부 옵티머스 수사가 펀드 사기의 책임소재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후반부 수사는 금융권 등의 로비 의혹과 펀드 자금 사용처를 밝히는 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전담 수사팀 대폭 확대...대통령도 협조 지시

15일 범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리며 신속한 수사에 나선 것은 옵티머스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견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당초 서울중앙지검 조사1

부에게 맡겼던 사건을 지난 9월 정기 인사 이후 경제범죄형사부로 넘겨 후속 수사를 해왔다.

하지만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지난 5월 초 작성했다는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이 유출되면서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해당 문건에는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 있다' '문제가 불거질 경우 권력형 비리로 호도될 우려가 있다'는 등 정치권 로비가 이뤄졌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채동욱 전 검찰총장, 양호 전 나라은행장 등 유력인사들이 옵티머스의 고문단으로 활동하며 사업에 도움을 줬다는 내용도 담겼다.

여기에 옵티머스의 로비 대상으로 추정된다는 확인되지 않은 명단까지 증권가에 나돌면서 옵티머스 로비 의혹에 불이 붙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연일 옵티머스를 둘러싼 의혹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들끓는 여론 속에 검찰은 뒤늦게 전력 보강에 나섰다. 법무부는 전날 다른 검찰청에 있는 특수·금융 전문 검사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발령냈고, 중앙지검의 다른 부서 검사 4명도 추가로 수사팀에 투입했다. 이로써 총 18명의 검사가 옵티머스 의혹 수사에 투입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성역 없는 수사를 언급하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환



매 중단 사태 (PG)

◇ 수사 동력된 옵티머스 4인방의 '자중지란'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이 공개된 건 옵티머스 사건의 핵심 인물들 간 공조체제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대표와 2대 주주 이모씨, 이사 윤모씨는 펀드 환매 사태가 불거졌을 때만 해도 '공생 관계'를 유지했다. 문제가 불거질 경우에 대비해 도주 및 처벌 대응 시나리오까지 함께 만들었을 정도다.

문제가 발생하면 김 대표와 각종 사업체를 운영하던 이씨를 보호하기 위해 윤씨가 모든 책임을 떠안고, 김 대표 등이 나서 윤씨의 뒤를 봐주고 사태를 수습한다는 게 이들의 구상이었다.

이 같은 계획이 먹히지 않으면 김 대표가 이씨를 속였다고 돌려대거나, 이마저 안 되면 김 대표가 도주하고 윤씨가 위조범으로 처벌받는 '플랜 B'까지 짜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들의 공조는 무너졌고, 초기 펀드 설계자로 알려진 스킨앤스킨 유모고문까지 제 살길을 찾기 시작하면서 계획이 수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검찰 조사에서 이씨와 윤씨, 유씨 등은 김 대표가 범행을 주도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대표는 자기도 다른 공범들에게 속았고 그들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재판에 대비하기 위

해 검찰의 증거 기록들을 살펴보면 서 누가 어떤 진술을 했고, 어떤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는지 확인하고 서로에 대한 배신감을 키웠다는 것이다.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도 이들 중 누군가가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고의로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김 대표 측 관계자는 "자신들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김 대표에게 덤터기를 씌우려는 것 같은데 공판 과정에서 하나하나씩 진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정식 재판은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 검찰과 피고인 사이의 증거 다툼에 더해 공범들 간 치열한 책임 전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san@yna.co.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OCT. 16th - OCT. 22nd, 2020

## H 마트와 함께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몸의 거리는 넓히고, 마음의 거리는 좁혀야 할 시간. H 마트 고객분들과 직원분들의 안전을 위해 6피트 안전 거리를 확보해주세요!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ID : @hmart\_ma

Join the H Mart Social Distancing Campaign, to help slow down the spread of COVID-19 for you and our H Mart family. Keeping 6 feet apart will bring us together again.

 VEGE QUEEN Dried Persimmon 곶감 1 LB/PKG. <b>\$6.99</b>	 Hass Avocado 하스 아보카도 EA. <b>\$0.99</b>	 ROSHNI Peanut 로시니 땅콩 5.6 OZ. PKG. <b>\$4.99</b>	 Fuji Apple 후지 사과 PREMIUM QUALITY/LB. <b>\$1.49</b>	 Kabocha 단호박 LB. <b>\$0.79</b>
 Oriental Sweet Potato 고이모 고구마 LB. <b>\$1.99</b>	 Idaho Potato 아이다호 감자 LB. <b>\$0.79</b>	 SOONYEOWON Tofu 수녀원 두부 3종 SOFT/SUBVEN/RYW/14.1 OZ. PKG. <b>\$1.29</b>	 White Cabbage 화이트 양배추 LB. <b>\$0.79</b>	 Clementine 클레멘타인 3 LB BAG. <b>\$4.99</b>

###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Fresh Beef Flank Steak 육개장용 생 앞지다 양지 LB. <b>\$7.99</b>	 Fresh Pork Single Belly Chink 수육용 생 삼겹살 LB. <b>\$7.99</b>
 Fresh Boneless Pork Loin Steak 생 돈까스 LB. <b>\$5.99</b>	 Fresh Boneless Chicken Breast 빠오는 생 닭가슴살 LB. <b>\$2.99</b>
 Frozen Cow Feet 냉동 소발 LB. <b>\$2.49</b>	 Marinated Sliced Beef Short Rib 양념 LA 스타일 LA STYLE/LB. <b>\$13.99</b>

###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TONGTONGBAY Frozen Cocker Clam 통통데 지속 반코막 ON HALF SHELL/12 OZ. - PKG. <b>\$3.99</b>	 Frozen Head-on Louisiana Shrimp 냉동 루이지애나 자연산 왕새우 9-12'S/LB. <b>\$7.99</b>
 TONGTONGBAY Frozen Squid Rings 통통데 오징어링 WITH SKIN/1 LB - PKG. <b>\$4.99</b>	 TONGTONGBAY Frozen Oyster 통통데 냉동굴 8 OZ. / PKG. <b>2\$8</b>
 Frozen Pollack 냉동 동태 LB. <b>\$1.99</b>	 Fresh Salmon Steak 생 연어 스테이크 LB. <b>\$6.99</b>

### SMART CARD MEMBER ONLY

 KYONG GI ME Medium Grain Rice 경기미 15 LB. <b>\$12.99</b>	 KWANGCHUN Roasted Seaweed with Green Tea 광천농협 녹차 도시락김 선물세트 3.38 OZ. (24 EA./BOX) <b>\$8.99</b>
 HAJO Yellow Croaker 해오름 황금빛 굴비 2.5 LB. <b>\$13.99</b>	 CJ BEKSUL Sweet Korean Pancake Mix CJ 백설 후덕믹스 ORIGINAL/GREEN TEA/14.1 OZ. <b>\$3.99</b>

 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허루허루 마이 쌀밥 NEW CROP! 15 LB. <b>\$13.99</b>	 CJ Cooked White Rice CJ 햇반 74 OZ. X 12 BOWLS / BOX. <b>\$12.99</b>	 HUY FONG Sriracha Hot Chili Sauce 후이퐁 스킨리차 스스 28 FL.OZ. <b>\$2.99</b>	 SHIRAKIKU 100% Pure Sesame Oil 시라키쿠 참기름 56 FL.OZ. <b>\$9.99</b>	 KEWPIE Deep-Roasted Dressing 큐피 심피 드레싱 8 FL.OZ. <b>\$2.99</b>
 HAJO REUM Red Pepper Powder 해오름 붉은 고춧가루 COARSE/4 LB. <b>\$12.99</b>	 GOMPYO Wheat Flour 곰표 밀가루 5.5 LB. <b>\$3.99</b>	 CHUNG JUNGONE Dried Seaweed 청정원 봉해안산 청정마려 7.4 OZ. <b>\$5.99</b>	 CJ Crispy Seaweed Rolls CJ 밀당의 고수 바삭한 김말이 VEGETABLE/1.1 LB. <b>\$5.99</b>	 SHIRAKIKU Sanakyo Udon 시라키쿠 사누끼야 우동 8.8 OZ. X 5 PCS / PKG. <b>\$3.99</b>
 HAITAI Homerun Ball Snack 해터 홈런볼 CHOCOLATE/5.15 OZ. <b>\$2.99</b>	 HAITAI Honey Butter Chip 해터 허니버터칩 1.05 OZ. X 12 EA. / BOX. <b>\$10.99</b>	 Disposable 3 Layer Face Mask 일회용 3층 마스크 50 PCS/PKG. - \$12.99 <b>\$8.99</b>	 ANTI BYE Ethanol Wet Wipes for Hands 안타바이 에탄올 티슈 20 PCS/PKG. - \$1.49 <b>2\$1.49</b>	 HELLO HOME Disposable Bamboo Chopsticks 헬로홈 대나무 젓가락 100 STICKS / PKG. - \$2.99 <b>\$2.49</b>

### KOREA'S GREATEST GIFT, MADE FRESH IN AMERICA.

Flavorful Apples, Korean Hot Peppers, Delicious Cabbage... Just Some of the many better ingredients that make our TOBAGI Kimchi the one you crave. Find it exclusively at H Mart.

한국인의 자존심, 토바기 김치!

### CUSTOMER SERVICE

1.877.427.726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http://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100 DANFORTH RD.  
BURLINGTON, MA 01803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prints/mistake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own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www.hmart.com](http://www.hmart.com)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 [me@hmart.com](mailto: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사장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부사장 수잔 안**  
339.224.1512  
susan@bostonpremierrealty.com

## OUR AGENTS



**이제봉**

781.654.5281

jblee@bostonpremierrealty.com



**애나정**

617.780.1675

anna@bostonpremierrealty.com

##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크리스틴 손**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전**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오성빈**

978.505.3736

osb@bostonpremierrealty.com



**Nikkie Park**

617.447.0591

nikkiepark@bostonpremierrealty.com



**이현주**

401.935.3397

hyunju@bostonpremierrealty.com



**Ritika Chopra**

617.697.1191

r Chopra@bostonpremierrealty.com



**이준균**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차민영**

651.402.5194

minyoung@bostonpremierrealty.com



**최은경**

781.690.4389

chrischoi@bostonpremierrealty.com



**이영순**

781.800.3412

bostonyi@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231.0316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9952

nancywang6000@bostonpremierrealty.com



**김원태**

617.620.8242

otk212@gmail.com



**재키형**

617.795.6171

jackie@bostonpremierrealty.com



**Kathy Eunsuk Song**

413.313.4165

kathysong2019@gmail.com



**Micki Choi**

413.507.1402

mickichoi@gmail.com



**주승원**

617.780.7839

peter@bostonpremierrealty.com



**최승진**

978.866.3248

gina@bostonpremierrealty.com



**레이크 김**

781.956.0409

drjakekim@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 FEATURED LISTINGS



### ● 세탁소 매매

보스톤남쪽, 타운센터에 위치한 Full Plant, 안정된 고객과 매상, 소유주 은퇴, 하이드로카본.

Asking \$300,000



### ● 커머셜 빌딩

보스톤 북쪽 시트에 위치, 메인스트리트 선상, 주요 체인점들 주변, 5 Units 리테일 스토어 식당, 세탁소, 이발소 테넌트

Asking \$825,000

## LISTINGS



### ● 세탁소 건물 + 비즈니스

현재 영업중인 Full Plant 세탁소 건물, Watertown 재개발 상권(호텔, 콘도, 쇼핑몰, 콘도, 연구실...)과 레지덴셜이 맞물린 위치, 파킹 5 가능

Asking \$999,000



### ●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남쪽에 위치(Norwell) 영업중인 Drycleaner 드롭 오프 & 얼트레이션 오랜기간 운영으로 꾸준한 단골이 많음

Asking \$53,000



### ● 세탁소 매매

안정적인 매상, 두터운 고객층, 보스톤 북부에 위치한 Full Plant 년매상 \$250,000

Asking \$189,000



### ● 커머셜 빌딩

보스톤 북쪽에 위치, 1층 식당, Property 텍스 저렴 2&3층 Residential 아파트, 월 렌트 인컴 \$5,500

Asking \$599,500 Price Reduced



### ● 네일샵 매매

T 스테이션에 가까운 위치, 연매상 80만불이상 철저한 고객관리로 안정된 인컴, 전용주차장

Asking \$380,000



### ● 세탁소 매매

Full Plant, 보스톤 북동쪽 타운 확보된 단골고객들 리뷰&매상 좋은 세탁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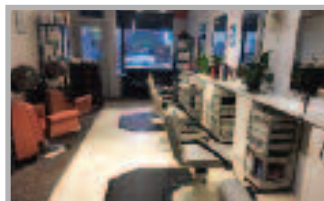
Asking \$200,000



### ● 세탁소 매매

보스톤 북쪽 타운, Full Plant 확보된 안정된 고객층

Asking \$120,000 NEW



### ● Lexington Hair Salon

Lexington 사업성이 좋은 위치에 있는 헤어사롱, 26년 주인이 직접 운영해서 단골 손님이 많음.

Asking \$40,000 Price Reduced



### ● Westford Nail salon

단골 손님이 많고 매상이 계속오르는 네일사롱 Manicure 6, Pedicure 6

Asking \$170,000



### ● 세탁소 매매

교통 좋은 위치, 보스톤 북쪽 30분 거리 Full Plant + 새 프레스 기계

Asking 문의 바람 급매



### ● 네일샵 매매

높은 매상과 안정된 고객층 고급스런 인테리어 최상의 비즈니스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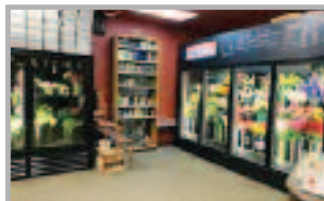
Asking \$320,000



### ● 커피샵 매매

보스톤 북쪽 타운, 연매상 20만불 이상 확보된 단골 고객, 부담없는 렌트비 1200 sq.ft.

Asking only \$90,000 Price Reduced



### ● Waltham Flower shop

오너가 20년을 운영, Main St 에 위치, 꾸준히 잘 되는 비즈니스, 단골 손님을 많이 확보

Asking \$100,000



### ● 드랍오프 세탁소

30년간 영업중인 드랍 오프 세탁소 매매, 안정된 고객과 수익, 주인 은퇴, 좋은 위치, Marblehead, MA 1700 SF.

Asking \$50,000



### ● 미용실(hair Salon)

잘 꾸며진 영업중인 미용실 매매, 1200 SF, 안정된 고객과 수익, Lexington Lots of parking

Asking \$80,000 Price Reduced

# 秋 장관 아들 의혹 제보자, 언론조정 신청

## "조선 측이 인터뷰 왜곡, 잘못 인정, 정정하기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휴가 관련 의혹을 제보했던 당직사병 현 모씨 측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신청했다.

현씨를 대리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일보의 2020년 7월6일 현 병장 인터뷰 기사 왜곡돼 그 당시부터 정정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됨에 따라 언론중재위에 요청 등 절차 진행과 추후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실제적 진실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의도나 진영논리로 인해 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되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입장과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경위서를 공개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김 소장 등이 문제를 삼은 것은 지난 7월 6일 조선일보 보도다.

김 소장 측은 페이스북에 게재한 언론조정 신청 이유 및 입장문을 통해 "서씨를 탈영범이라거나 서씨의 미복귀 상황을 상부에서 없었던 일

로 하라는 지시를 받았거나 서씨가 특별대우 대상이라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다고 왜곡한 것은 명백한 오보"라며 "뿐만 아니라 이 기사에서 거명된 서씨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현씨는 이 기사 보도 후 담당 기자에게 강력 항의하며 수 차례 허위 기사 삭제와 사실과 다른 부분 정정을 요구했지만 담당 기자는 데스크가 반대해 정정할 수 없다며 삭제와 정정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조선일보의 왜곡보도 사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언론은 진실과 객관적 사실보다 정치적인 편향성을 우선해서는 안되며 특히 여론을 호도하고 정치적 프레임에 의해 사실 자체를 절대로 왜곡하거나 조장하거나 과장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소장 측은 또 "진보성향이든 보수성향의 유튜브든 현씨 관련 사실과 전혀 다른 것을 마치 진실된 사실인 양 왜곡해 방송한 유튜브 방송에 대해 위법성 검토,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절차와 방법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 조정래 "사죄안하면 법적책임 진중권"고소 기념 저술할 것"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 윤섭 특파원 = 소설 '태백산맥,' '아리랑' 등으로 유명한 조정래 작가는 15일 '친일과 발언 논란'과 관련, 이를 '광기'라고 비판한 진중권(57)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사죄하지 않으면 작가 명예를 훼손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조 작가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진중권이라는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심지어 대통령 딸까지 끌어들여 조롱했는데, 그 사람도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그 사람한테 공개적인, 진정 어린 사죄를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작가는 지난 12월 '등단 5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토착왜구라고 부르는, 일본의 유학을 갔다 오면 무조건 다 친일파가 되어버린다. 민족 반역자

가 된다"고 말했다. 전체적으로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이지만 대부분 언론은 '일본의' 부분만 문맥에 맞게 '일본에' 또는 '일본'으로 수정해 보도했다.

그러자 같은 날 진 전 교수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정도면 '광기'라고 해야 한다"면서 "시대착오적인 민족주의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극우적 경향이 주책없이 발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진 전 교수는 "대통령의 따님도 일본 고쿠시칸대학에서 유학한 것으로 아는데, 일본 유학하면 친일파라니 곧 조정래 선생이 설치하라는 반민특위에 회부되어 민족반역자로 처단당하시겠다"고 말해 조 작가와 여론 일부의 강한 반발을 산바 있다.

조 작가는 당시 발언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고도 주장했다.



# 마음대로 골라본다

\$24<sup>99</sup>

조정된 상품 가격 (5월 1일부터, 무료영화는 6월부터 편당 1볼로 변경)

<p><b>Plus 상품</b></p> <p>KBS, MBC, SBS, EBS, YOUTUBE</p> <div style="border: 2px solid #E67E22;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font-size: 24px; font-weight: bold; color: white; margin: 0 auto;">\$24<sup>99</sup></div>	<p><b>Premium 상품</b></p> <p>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YOUTUBE</p> <div style="border: 2px solid #0070C0;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font-size: 24px; font-weight: bold; color: white; margin: 0 auto;">\$34<sup>99</sup></div>	<p><b>VIP 상품</b></p> <p>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영화/성인, YOUTUBE</p> <div style="border: 2px solid #E67E22;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font-size: 24px; font-weight: bold; color: white; margin: 0 auto;">\$39<sup>99</sup></div>
--	---	--



**티보 대리점 모집**

각 딜러는 LA 본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초기 자본 없이 창업이 가능합니다. 주요 업무: 신규 서비스 설치 및 기존 고객관리  
연락처: 617.949.1766

총 13개 Live방송중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NOW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 23년 BMW와 함께 해온 전문가가 직접 도와드립니다.

브라이언 조  
**Brian Cho**  
Executive Client Advisor

 **BMW OF NORWOOD**  
**M CERTIFIED CENTER**

2021년 신차 구매 및 리스  
퍼포먼스 차량 전문 M-Certified 딜러  
저렴한 럭셔리 중고차 브랜드 취급

Phone : **617.970.1073**  
Email : [bcho@driveprime.com](mailto:bcho@driveprime.com)

918-920 Providence Highway Route 1 <The Automile>, Norwood, MA 02062

##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http://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밑부분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http://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계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http://www.bostonkorea.com)

# 코로나 사태 여러분과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는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중단치 않고 발행합니다.  
두꺼운 얼음 밑에서 물은 끊임없이 흐르듯 모든 게 멈춘 순간에도 끊임없이  
필수 정보를 전하고 한인간의 네트워크를 연결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광고주들로 인해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이에 따라 독자 여러분께 도움을 호소합니다.  
혹 여유가 되는 분들은 보스톤코리아를 도와주십시오.  
보스톤코리아에 도움을 주실 분들은 아래의 주소로 체크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Payable to : The Boston Korea

보스톤코리아도 어려운 광고주들을 돕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에 연락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editor@bostonkorea.com

보스톤 **코리아**

## 후원금 기부자 (6월19일 현재)

- 김성혁 (한미정치혁신장연대)
- 무명 기부자 2명
- 김병국 (한미예술협회장)
- 한미예술협회
- 손광희
- 최홍균
- 황성미
- 모니카 리(이재영)
- 연세대학교 동창회
- 서울대학교 동창회
- 윤희경(보스톤봉사회)
- 필라모니아 보스톤
- 보스톤 뉴헤미야 인스티튜트
- 김희선
- 김한나 변호사
- 이길신
- 727 정전기념사업회(강경신, 김성혁)
- 김은한
- 권복래
- 사라 제럴드

### 성양두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오후 4시 30분 (Korean)



평일 미사  
월요일: 아침 6시  
화-금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전 11시

본당 유튜브 채널주소:  
QR 코드 스캔  
<https://bit.ly/2JJ6ZdT>

미사는 본당 성전에서 모든 미사는 본당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합니다. COVID-19관련 신자분들 유의사항은 본당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5 Ash St. Newton MA 02466 /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 stdaveluychurch.org  
www.facebook.com/stdaveluy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살을 노래하는 교회

###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http://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렬

## 급매 커머셜 건물

1층 식당 2-3층 아파트  
최적의 은퇴투자  
보스톤 북쪽 도시에 위치

연락처 : 978.494.2043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 목사: 권총상  
Faith Theological Seminary, M.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중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원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종교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공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http://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3

## 골프 레슨

US **GTF**  
UNITED STATES GOLF TEACHERS FEDERATION  
— Leader in the Field of Golf Instruction —

Master Golf Professional

최성조 프로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sj.usgtf@gmail.com

857.600.6755

###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교회: 토 9:30~12:30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 감추어도 느껴지는 대한민국 미소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는 대한민국 미소의 힘은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른 소통의 자세로 나보다 남을 위해  
따뜻한 미소를 지닌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 코로나19 예방하기!!

- ① 함께있는 자리에 마스크 꼭!꼭! 해요.
- ② 손은 30초 이상, 자주 씻어주세요.
- ③ 기침이 나오면 옷소매로 가려야 해요.



# '드디어 흔들리나'...마이너스 전환에 매물 쌓이기 시작한 강남

**(서울·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김동규 기자** = 한달 이상 집값이 제자리에 머무르며 극심한 눈치보기를 해 왔던 서울 강남권에서 최근 급매물 위주로 주택이 거래되면서 호가가 수천만원씩 낮아지고 매물도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다.

이를 두고 아직 본격적인 하락 전환으로 보기엔 이르다는 평이 많지만 완강한 강보합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어 시장의 행배가 주목된다.

한국감정원이 15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달 둘째주(12일 기준)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1%를 기록했다.

앞서 강남구의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8주 연속 0.01%를 유지하다 지

난주 0.00%를 기록하며 보합으로 내려섰고 이번 주엔 마이너스 변동률로 전환된 것이다.

하지만 강남4구 변동률은 전주와 같이 0.00%로 변함없었고 서울은 8주 연속 0.01%의 변동률을 보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서울 주간 상승률은 7월 둘째주 0.63%를 기록한 이후 계속 내려서 이달 첫째주 0.24%까지 하락했다.

강남권에선 소폭이지만 호가가 내려가는 단지도 나온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7㎡의 경우 그동안 22억5천만원으로 호가가 유지됐으나 22억원, 21억7천만원 등으로 내렸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요즘 급매로 나오는 물건이 가격이 다소 내

려가고 있다"며 "전용 77㎡는 22억2천만원까지 거래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다소 조정되면서 잘만 협상하면 21억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84㎡)는 23억~23억5천만원으로 호가가 유지됐으나 최근 수천만원 내린 매물이 나왔고, 강동구 고덕주공(84㎡)도 12억4천만원까지 올라갔던 호가가 2천만~3천만원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처 관계자는 "잠실 대규모 단지에서 실거래가와 호가가 다소 내려가면서 매수 문의도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강북구 수유동이나 금천구 가산동 등 서울 다른 지역에서도 호가가

수천만원씩 하락하는 단지가 나오고 있다.

매물도 쌓이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이달 5일 3만6천987건이었으나 이후 계속 쌓여 이달 4만1천577건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강남4구에서는 1만1천50건에서 1만2천223건으로 아파트 매물이 늘어났다.

경기도의 경우 7만8천167건에서 8만5천35건으로 증가했고, 수도권 전체적으로 보면 매물이 13만6천72건에서 15만58건으로 늘었다.

다주택자들의 고민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더욱 강화했고 공시가격 현실화율(공

시가/시세)을 높이는 로드맵 발표도 목전에 두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소득세 중과가 내년 6월 시행되는 만큼, 그전까지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집은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은 본격적인 하락장이 시작된 것으로 보기엔 이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강남구의 한 주 변동률이 마이너스가 나왔다고 집값이 내리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아직은 여전히 '뽕뽕한' 집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있고, 시장을 관망하는 강보합세가 지배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 Susan Ahn 부동산

한인대표 에이전트 #1

**고객들의 끊임없는 추천이 증명하는 실력, 신속 정확한 일처리**

**MULTI MILLION DOLLAR SALES. TOP PRODUCER #1 AGENT**

"Premier Realty Group과 함께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비전과 열정있는 에이전트를 모집합니다"





보스톤 최고 한인 부동산 회사 Premier Realty Group에 소속되어 있고, 20년 넘는 미국 생활과 부동산 노하우로 부동산 구매, 매매, 투자건물, 렌트를 찾아 드립니다. 한국에 계시는 고객은 계약을 하고 바로 입주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Cell: 339.224.1512**

Kakao ID: susan1223  
Email: susan@bostonpremierrealty.com

**275 Grove St. Suite 2-400  
Newton, MA 02466**

FDA 등록된 한국산 코로나 자가 진단 신속 키트

단 10분만에 감염여부를 알게되는  
한국산 코로나 자가진단 신속 검사 키트

# 코로나 자가진단 신속 검사 키트 100분 한정판매



현금Only!

**\$50** / 개당

COVID-19 IgM/IgG  
항체여부 진단, 감염여부 진단  
정확도: IgM 100% IgG 97.5%

\* 4개(\$200) 한묶음으로만 판매합니다.

**일시** 10월 25일(일) 11~1시

**장소**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문의** parkcm21@gmail.com(한국어)  
978-971-0060(영어)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Mortgage 101

나는 Mortgage broker는 아니지만 서당 케 3년이면 뭐 한다고 모계지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다.

아니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모계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고객이 조금 더 비싼 집을 마음에 들어 할때이 집을 살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수 있다.

난 우리 회사에 새 에이전트가 들어 오면 제일 처음에 교육 시키는것 중에 하나가 Mortgage Training 이다.

한국말이 편한 에이전트들은 한국말을 하는 모계지 브로커를 부쳐 교육을 받게 한다.

그만큼 모계지에 대한 지식은 정말 중요

하다.

흔히 W2 나 1099로 세금 보고를 하신다.

W2는 흔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1099는 self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로 나눈다.

W2 같은 경우는 심플하다. 거기서 현재 나가는 비용을 빼야 한다.

그게 Student Loan이 될수도 있고 Car Payment가 될수도 있고 또 집 Mortgage Payment이 될수도 있다.

그리고 남은 돈에서 대개 40% - 45%까지 12로 나누면 다달이 본인 Mortgage Payment이 된다. 이 액수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준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직장에서 지난 2년동안 일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또 대학원에서 있으신분

들은 직장 1년동안 근무 한것도 된다. 특히 박사 학위를 받으신분들은 바로 직장 생활을 시작 했더라도 모계지가 가능하다.

의사들은 특히 막 일을 시작 했더라도 모계지가 가능하다.

변호사일 경우는 Firm에 취직 했을때 모계지가 바로 가능하다.

1099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하다. 많은분들이 self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대로 tax 보고를 하셨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지 않으신분들은 Business Bank Account를 가지고 Activities를 보고 돈을 빌려 주는데 이율이 좀 더 높다.

내가 항상 이야기 하지만 집을 사시기전에 적어도 2년전부터 계획을 세워 Mortgage Consultant 와 미리 상담을 해서 미리미리 tax 보고를 얼마나 해야 하는지를 상담하고 계획 하는게 중요하다.

다음 페이먼트도 마찬가지로이다.

돈이 어디서 오르라에 따라서 다 다르다. 은행에서 보는거는 모계지를 빌리는 사람이 혹시 다른데서 다른 돈을 빌렸나 안 빌렸라를 본다.

만약 부모님이 다음 페이먼트에 도움을 주신다면 "Gift Letter" 도 작성해야 할 것이고 미리 언제 받아야 하는지도 의논해야

하다.

다시 말하지만 어느 은행을 선택하르라에 따라서 조건이 조금씩 달라진다.

Mortgage payment에는 다음 세가지가 포함 된다.

Principal Payment

Property tax

Home insurance.

그리고 Condo일 경우에는 Condo Fee(Association fee)도 포함 시켜야 한다.

Single Family Home이라도 Association 이 있으면 Association fee를 포함 시켜야 한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10월 18일 - 10월 24일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 자극제로 여겨야**

●운수: 하고자 하는 일에 차질이 생겼도 좌절하지 마세요. 현재의 난관을 새로운 뉘를 창조할 수 있게 해주는 자극제로 여겨야 하겠습니다. ●금전: 무엇이든지 새로이 얻고자 하지 말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에 더 신경 쓰도록 하세요. ●애정: 있는 그대로 믿어주지 못하는 것이 슬픈 일이지만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만 보고 믿으면 안 됩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20, 24일 길일. 18, 21일 주의.

**소띠 | 생각을 바꿔서 보면**

●운수: 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금전: 매상이 예전 같지 않아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이런 저런 공리를 하게 됩니다. ●애정: 한번 꼬인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보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21, 24일 길일. 19, 22일 주의.

**범띠 | 희망의 끈을**

●운수: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추진하세요.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자금이러도 도전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금전: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조금씩 수입이 증가할 것입니다. ●애정: 마음이 가다가도 자주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상대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18, 22일 길일. 20, 23일 주의.

**토끼띠 | 큰 행복감과 즐거움을**

●운수: 환한 햇살이 나에게 비취주니 밝고 희망적인 에너지가 넘칩니다. 기쁜 소식을 듣게 되니 근심 걱정에서도 벗어납니다. ●금전: 그동안 애쓴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줄만한 좋은 결과가 따라 줄 것이다. ●애정: 시간가는 줄도 모르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상대가 나타 납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감과 즐거움을 줄 것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19, 22일 길일. 18, 21일 주의.

**용띠 | 주위를 잘 살펴야**

●운수: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는 것 같아 애쓰 보람도 없고 기운이 빠지더라도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금전: 바라는 만큼의 수입이 아니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재물이 많이 들어올 때도 있지만 적게 들어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애정: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지 마세요.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위를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0, 24일 길일. 22, 23일 주의.

**뱀띠 | 가능성이 있는 것에만**

●운수: 자신의 몸을 가버리 여기지 마세요. 육체적으로 건 강해야 마음의 행복도 있는 것입니다. ●금전: 욕심만으로 무리하게 목표를 잡았다가는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가능성이 있는 것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애정: 마음이 편치 않으니 힘이 듭니다. 남의 잘못은 쉽게 용서 하면서도 정작 가까운 가족의 허물은 용서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18, 21일 길일. 20, 23일 주의.

**말띠 | 이해하는 시선으로**

●운수: 온 열정을 다 바쳐서 일해야 합니다. 정성을 들여서 신경 쓴 만큼 좋은 결과가 따라줄 것입니다. ●금전: 남을 믿고 말 기기에겐 그리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직접 나서서 처리해야 수익에 대한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 이해하는 시선으로 보니 걸리던 것이 다 사라집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니 상대에 대해 품는 마음도 관대해지겠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19, 22일 길일. 21, 24일 주의.

**양띠 |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운수: 조금 부족하고 더디게 하는 것같이 보여도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금전: 얼마나 느긋하게 잘 참아내느냐에 따라 돌아오는 이득의 차이가 클 것입니다. ●애정: 어찌 보면 자잘하고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일상을 챙겨주는 마음에서 서로간의 정이 더 돈독해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9, 23일 길일. 22, 24일 주의.

**원숭이띠 | 적극적으로 뛰어다녀야**

●운수: 남에게 좋은 것이라도 자신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작 자신에게 맞는 것은 따로 있으니 다시 찾아보세요. ●금전: 가만히 있으면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뛰어다녀야 얻는 것이 늘어날 것입니다. ●애정: 이것저것 걸리는 것이 많다보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마음먹지 않으면 질질 끌려가는 격이 됩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2, 24일 길일. 20, 23일 주의.

**닭띠 |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운수: 욕망이 사람 우물을 판다고 필요를 느끼면 다른 사람에게 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먼저 나서서 일을 만드세요. ●금전: 급히 서둘러 일처리를 하려고 하면 도리어 득보다는 실이 많아집니다. ●애정: 자기 스스로 변화를 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늘며 다른 사람이 자신을 위해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0, 22일 길일. 18, 23일 주의.

**개띠 | 흥가분한 마음으로**

●운수: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니 심신이 편안해집니다. 건강 한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 금전적으로 골치 아프게 했던 일이 해결됩니다. 이제는 흥가분한 마음으로 편히 잠잘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의 마음이 통한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집안 분위기가 따뜻해지니 최고의 안식처가 되어줄 것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8, 20일 길일. 19, 21일 주의.

**돼지띠 | 누가 먼저 깃발을 쫓느냐에 따라**

●운수: 자신이 하고자 하는 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리 잘 알고 있는 것이 일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금전: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남보다 한 발 앞서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누가 먼저 깃발을 쫓느냐에 따라 소득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애정: 애정이 더욱 돈독해집니다. 연인과 달콤한 사랑을 나누기에 좋을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9, 24일 길일. 20, 23일 주의.

###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이베이 하시는 분 찾습니다  
T. 617-678-5059

아리수 코리안 레스토랑  
홀에서 일하실 분 구함  
T. 978-466-8688

웨스터보로에 있는 한국 식당에서 함께 일할  
웨이터, 웨이추레스 구합니다.  
T. 508-366-8898

###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좋은 조건으로 리틀부산 식당 판매합니다.  
렌트 저렴, 좋은 위치, 리커 라이선스  
주인 은퇴, 상담 환영합니다.  
T. 978-897-5107

### 생활서비스

광고 문의 617-254-4654

보스톤지역 자동차 출장 수리 헤드립니다.  
모든 브랜드 차종, 모든 파트 수리 가능합니다.  
T. 646-510-6022

###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 환불원정대, '다이너마이트'도 제치고 차트 정상 싸움이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MBC TV 예능 '놀면 뭐하니?'로 결성된 막강 걸그룹 '환불원정대'의 첫 활동곡 '돈 터치 미'(Don't touch me)가 국내 음원 차트 1위를 싸늘이했다.

지난 10일 오후 6시 공개된 '돈 터치 미'는 24시간 누적 단위로 이용량을 집계하는 멜론 '24히츠'(24Hits) 차트에서 11일 오후 3시 기준 1위에 올랐다.

'돈 터치 미'는 발매 후 멜론 차트에서 빠르게 순위를 높이며 치고 올라와 지난 8월 하순 이후 장기간 정상을 지켜온 방탄소년단(BTS)의 히트곡 '다이너마이트'까지 제쳤다.

역시 24시간 기준으로 집계하는 플로 차트에서도 같은 시각 1위에 올랐다. 지니뮤직, 벅스 실시간 차트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다.

환불원정대는 리더 천옥(이효리)을 중심으로 만옥(엄정화), 은비(제시), 실비(화사)로 이뤄진 걸그룹이다. 유재석의 '부캐'(부캐릭터)인 신박기획 대표 지미유가 제작자로 나섰다.



최정상의 인기였다 강력한 카리스마 , 음악적 역량을 보유한 여성 아티스트 네 명이 걸그룹으로 뭉쳤다는 점에서 화제성이 입증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걸그룹 히트곡을 다수 만든 블랙아이드필름과 전군이 작곡가로 힘

을 보였다. '놀면 뭐하니?' 측은 환불원정대 음원 수익을 싸늘이리의 음원 수익과 함께 연말 전액 기부할 것이라고 앞서 밝혔다. kimhyoj@yna.co.kr

## 블랙핑크, 빌보드 '아티스트 100' 첫 정상...2위는 B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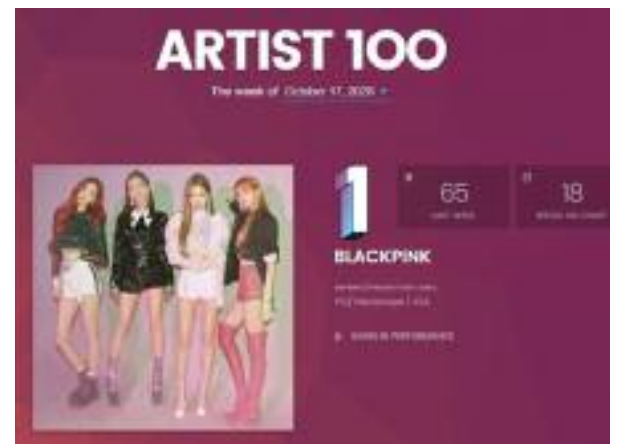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걸그룹 블랙핑크가 첫 번째 정규 앨범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2위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 성적을 낸 데 이어 팝스타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아티스트 100' 차트에서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또 2위는 방탄소년단(BTS)이 차지해 K팝 그룹이 '아티스트 100' 차트 최상위권을 점령하는 기염을 토했다.

빌보드는 13일(현지시간) 블랙핑크가 정규 1집 '디 앨범'(THE ALBUM) 발매에 힘입어 '아티스트 100' 차트 65위에서 1위로 급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아티스트 100' 첫 정상을 밟았다.

또한 2014년 이 차트가 발표된 이래 팝스타를 통틀어 걸그룹이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imhyoj@yna.co.kr



##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보스톤코리아  
코로나 사태  
여러분과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는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중단치 않고 발행합니다. 두꺼운 얼음 밑에서 물은 끊임없이 흐르듯 모든 게 멈춘 순간에도 끊임없이 필수 정보를 전하고 한 인간의 네트워크를 연결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광고주들로 인해 말걸음이 무겁습니다.

이에 따라 독자 여러분께 도움을 호소합니다. 혹 여유가 되는 분들은 보스톤코리아를 도와주세요.

보스톤코리아에 도움을 주실 분들은 아래의 주소로 체크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Payable to : The Boston Korea

보스톤코리아도 어려운 광고주들을 돕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에 연락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editor@bostonkorea.com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 하루를 마친 부부의 기도

오래전, 어느 허름한 골동품 물건들을 모아둔 어두컴컴한 앤틱 (Antique shop)을 들어갔었다. 가게 주인은 사람이 오가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다. 다만, 자신도 골동품처럼 그렇게 옛스러운 멋을 안고 그저 앉아 있었다. 오래된 물건들(골동품)을 구경하길 좋아하는 나는 한참을 그 컴컴한 곳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구경을 하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나도 그만 그곳에서 고풍스러운 모습에 빠져들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작은 숨소리만이 오가는 시간은 꽤 흐른 시간이 되었다. 문득 지나다 생각이 먼저였는지, 마음이 먼저였는지, 몸짓이 먼저였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발을 멈추었다. 그 자리는 바로 밀레의 '만종'의 그림 앞에서였다. 오랜 세월이 골동품 가게를 지켜 온 것처럼 액자에는 세월의 먼지들이 쌓여 있었다. 저 겸손히 두 손을 모으고 감사해 하는 저 부부의 마음속으로 그렇게 들어가고 있었다. 마치 그 두 사람의 심장박동과 내 심장박동이 만나 움직이는 듯이 그런 놀라운 순간의

시간을 만났었다. 그리고 나는 먼지 쌓인 그림을 나의 인연인양 그렇게 사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살이 힘겹다고, 살아가는 일이 고달프다고 느껴질 때면 가끔 밀레의 '만종'을 만난다. 하루 온종일 땀 흘리며 일터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며 부부가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드렸던 저 정성의 기도가 저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오늘의 내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붉었던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 멀리 보이는 종탑의 희미한 빛의 의미는 무엇일까? 가끔 내게 화두처럼 다가오기도 한다.

그렇다, 모두가 하루의 삶으로 바쁘다. 누구를 위함이 아닌, 나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한 바쁜 것이다. 하루의 시간 동안 일지리를 주시고, 생명을 주심이 감사한 날이다. 호흡할 수 있음이 그 무엇보다 감사한 일임을 알면서도 잠시 뒤돌아서면 잊어버린다.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아무런 느낌도 없이 지낼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 그렇다면 이제는 나만을 위한 감사가 아닌, 나 아닌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감사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여본다. 누군가의 어려움을 만나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랑 마음의 시작이면 좋겠다.

지평선을 넘어가는 희미한 노을빛을 보면서,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종탑의 그림을 가슴으로 만나며 그리고 저 멀리에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가슴으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날이면 감사한 날이 아닐까. 밀레는 매사에 감사하는 농부들의 모습을 그리게 된 이유를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옛날에 저녁 종 울리는 소리가 들리면 할머니는 한 번도 잊지 않고 일손을 멈추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곤 했다네." 농부의 집안에서 태어난 밀레는 가난한 농부들이 힘든 농사일에 투정부리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던 것이다.

농부들이 매일 이른 아침 만났던 땅과 하늘에 대한 감사가 있었던 것이다. 밭을 일구며 살았던 농부들의 피땀 어린 땅과 비와 해

를 내려주시는 하늘에 대한 감사가 있었던 것이다.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신 하늘에 감사한 기도를 드렸던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랑을 잃지 않고 아주 작은 소박한 꿈으로 욕심도 없이 하루에 감사해 하고, 또 한 내일의 작은 소망의 마음으로 살았으리라. 힘든 농사일을 마친 부부의 마음에는 하루를 건강하게 지켜주신 감사가 있었을 것 이리라.

그럼, 오늘의 나는 어떤 감사로 하루를 맞을 것인가. 무엇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릴 것인가. 많은 감사를 곁에 두고도 불평으로 가득한 하루를 살고 있지는 않은가. 주신 많은 감사들을 아무런 느낌도 없이 당연함의 무뎠진 양심으로, 영혼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앤틱 에 오랜 시간 놓여있던 그림의 먼지들을 털었듯이 오늘은 나의 오랜 시간 쌓인 영혼의 먼지들을 털고 싶다. 맑은 마음이 되고 싶다. 하루에 감사해 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욕심을 내려 놓는 작은 소망의 꿈을 꾸고 싶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담객설閑談客說: 나뭇잎도 운다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광화문 글판이다.

나뭇잎이  
벌레 먹어서 예쁘다  
...  
그 구멍으로 하늘이 보이는 것은 예쁘다  
...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흔적은  
별처럼 아름답다  
(광화문 글판, 벌레 먹은 나뭇잎 중에서, 이생진)

북에서 자주 일을 벌이는 모양이다. 애꿎은 국민이 목숨을 잃었다. 사고였는지, 의도였던가. 하지만 꼬집혔고 꺾였는데, 울음도 아프다는 비명도 없는 모양이다. 죽은 이는

낙엽처럼 황량히 스러져 갔다.

소설가는 꼬집힘이다. 시인한테는 꽃이 피는게 먼저 일수도 있겠다. 사실과 서정 사이에 극명한 간극을 보여주는데, 울음만은 같다. 울음이야 소설가나 시인에게 공통이란 말이다. 어이 없어 허던 미당이 던진 한마디. '됐네, 이사람아.' 우리도 이만 하면 됐네라 말할 때가 되지 않았던가. 자주 꼬집히면 아프다.

늦기를 이다. 보스톤 가을, 나뭇잎은 노랗고 붉다 못해 차라리 불탄다 해야겠다. 하지만 이제 나뭇잎도 떨어지는 시절이다. 나뭇잎은 파먹혀 떨어지고, 말라서 떨어진다. 떨어지는 나뭇잎이 운다.

벌레먹은 장미. 방인근 소설 제목이던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도다 (이사야 33:9)

보스톤코리아 기사 제목이다. '떡볶이 산다.' 그럴듯 한데, 항공업계의 어려움을 명징하게 읽어낼 수 있다. 듣는 마음은 편치 않은데, 우는 소리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다. 웃음거리로 만들고자 하는 망발도 없음을 밝힌다.

미당과 김동리의 대화이다. 두 대가大家는 한국문학에서 시와 소설의 쌍두마차였다. 동리가 먼저 말을 꺼냈다. '병어리도 꼬집히면 운다.' 듣고 있던 미당이 무릎을 쳤다. '명구일쎬. 병어리도 꽃이 피면 운다.' 동리의 대답인데, '아이다 (아니다).' 미

당은 꼬집히면 꽃이 피면으로 잘못 알아 들은 거다. 동리는 경상도가 고향이라 했던가.

어릴적 이다. 선생님이 당부했고, 교육했다. 나무를 함부로 꺾지 말라는 말씀이었다. 꺾일적에 나는 뚝 소리는 나무 뼈 부러지는 소리일테고, 아프다는 비명이라고 덧붙였다. 어린 내가 섬 했던 기억이다. 나뭇꾼도 생나무는 꺾지 않는다.

여름이면 벌레는 나뭇잎을 파 먹는다. 시인은 벌레에게 먹인다고 했다. 나뭇잎은 다 파먹히면 떨어진다고도 했다. 벌레도 먹어야 하겠지만, 나뭇잎은 아플게다. 작년 가을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성형외과**

성형에 대한 불안한 마음, 휴람이 책임지겠습니다!

휴람 성형이벤트 지금 이용해보세요!  
 상담 · 예약 · 안전하고 퀄리티 높은 수술 ·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보호자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한 차원 높은 의료 서비스 휴람

<p>상안검 or 눈썹거상술</p> <p><del>187만원</del> 154만원~</p>	<p>하안검 + 지방재배치</p> <p><del>187만원</del> 154만원~</p>	<p>안면거상술 +목거상</p> <p><del>880만원</del> 660만원~</p>	<p><b>HURAM</b> 성형이벤트</p> <p>아름다움을 만드는 곳</p>		
<p>이마 거상술</p> <p><del>495만원</del> 330만원~</p>	<p>코 성형</p> <p><del>363만원</del> 264만원~</p>	<p>지방이식 +PRP</p> <p><del>330만원</del> 220만원~</p>		<p>가슴성형</p> <p><del>660만원</del> 550만원~</p>	<p>지방흡입</p> <p>220만원 ~</p>



“ 정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디테일  
 환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체크하는 디테일  
 풍부한 경험으로 올바른 개선책을 찾아내는 디테일  
 수준 높은 세포치료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디테일  
 안정적인 마취를 통해 더 좋은 수술결과를 이끌어내는 디테일 ”

휴람 네트워크 병원    휴람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p>반재성 대표원장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 바노바기성형외과</p>	<p>류성영외과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 부산형외과</p>	<p>노성훈 대표원장 카이스트의과대학 졸업 노상호성형외과</p>	<p>김봉규 대표원장 연세대 석/박사 졸업 YK성형외과</p>
<p>김태현 대표원장 의과대학 졸업 리플성형외과</p>	<p>최은익 대표원장 경희대 의과대학 졸업 드림라인클리닉</p>	<p>정경인 대표원장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 시너지성형외과</p>	<p>박재현 대표원장 의과대학 졸업 리본뷰티메디칼그룹</p>



**김수남**  
 하의의료사업담당

**617.949.1766**

카카오톡 010.3469.4040 / ID: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감기가 사라졌다' 감염질환 최고의 백신, 손 씻기와 마스크

- 높아진 개인위생 수준, 감기·독감 등 감염성 호흡기 질환 환자 수 크게 줄어
- 30초 이상, 비누 이용해 흐르는 물에... 올바른 손 씻기, 세균 99.8% 제거
- 주요 감염 통로 손... 마스크 착용과 함께 하루 최소 8번 이상 손 씻어야

이번 주 휴람에서는 휴람 의료네트워크 H+양지병원의 도움을 받아 감염질환의 예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준이 높아지면서 코로나19와 별개로 감기 등 감염성 질환 환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예방으로 타 감염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세균이 우리 몸에 파고들 틈이 없어진 것이다.

질병관리청(KDCA)이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52개 의료기관을 표본보고기관으로 한 <호흡기 바이러스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호흡기 바이러스 양성률

은 ▲3월 12.7%, ▲4월 21.7%, ▲5월 52.6%, ▲6월 59%, ▲7월 53.5%, ▲8월 42.5%, ▲9월 22.8%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8월을 제외하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모임이나 외출 대신 비대면 접촉이 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가 일상화되면서 감기 등 감염성 호흡기 질환 발병률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환자들이 코로나19 전염을 우려해 가벼운 증상만으로는 병원을 찾지 않는 것도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 주된 감염 통로는 손, 손 씻기로 감염질환 60% 예방 가능

감기를 비롯해 각종 전염병 등 감염질환 예방의 가장 기본 수칙은 손 씻기다. 손만 잘 씻어도 감염질환이 약 60%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제로

하루에도 몇 번씩 손으로 얼굴을 만지기 때문에 우리 손이 주요한 감염 통로가 된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 연구진이 2015년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실험 결과, 학생들은 시간당 평균 23번 얼굴을 만졌다. 그중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으로 쉽게 들어오는 통로인 입, 코, 눈 같은 얼굴의 점막 부위를 만지는 횟수도 4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의 한쪽 손에는 약 6만 마리의 세균이 있고, 3시간만 손을 씻지 않아도 26만 마리의 세균이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기침한 뒤, 음식 먹기 전, 화장실 다녀온 후, 외출 후 등 수시로 손을 씻는 것이 안전하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발표에 따르면 손 씻기를 통해 설사 질환은 30%, 감기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은 20% 정도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고 한다.

-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꼼꼼하게 '제대로' 손 씻어야

손을 '제대로' 씻는 것도 중요하다. 물과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어야 하며 양손의 모든 면을 닦고 특히, 사물과 접촉이 잦고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숨어있는 손톱과 손톱 밑도 꼼꼼하게 닦아야 한다. 이렇게 올바른 방법으로 손 씻기를 할 경우 세균의 약 99.8%를 제거할 수 있다.

코로나19, 폐렴 등 비말 전염성이 강한 감염질환의 경우 손 씻기와 함께 마스크 착용도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침할 때 튀어나오는 미세한 물방울인 비말에 바이

러스가 섞여 나와 타인의 입이나 코를 통해 감염을 일으킨다. 기침과 재채기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나 식사 중에도 비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감염된 사람이 마스크를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또한, 기관지염, 천식 등 기관지 질환을 유발하는 먼지나 이물질 등을 일차적으로 걸러주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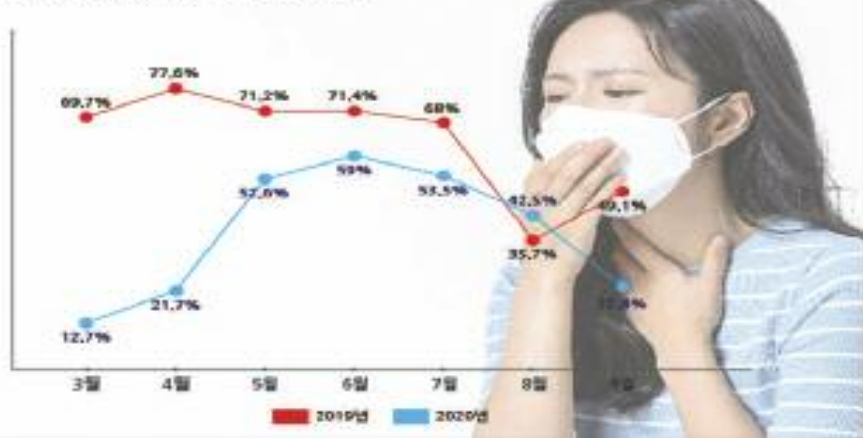
감기는 비말을 통해서 주로 감염되지만 바이러스 비말이 묻어있는 손으로 코나 입 등의 호흡기를 만지는 것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과 함께 손 씻기, 손소독제 사용을 통해 손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외출 후, 대중교통이나 다중이용시설 이용 후에는 반드시, 그리고 수시로 올바른 손 씻기를 해야 감염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도움말 : 에이치플러스(H+) 양지병원 감염내과 이지용 과장

"감염질환의 예방"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호흡기 바이러스 현황 (양성률: 확진자 비율)  
[질병관리청(KDCA) <주간 건강과 질병>]



##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조정된 상품 가격 (5월 1일부터. 무료영화는 6월부터 편당 1화로 변경)

\*전상품 1년 약정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sup>99</sup>**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종편, YOUTUBE

**\$34<sup>99</sup>**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종편, 영화/성인, YOUTUBE

**\$39<sup>99</sup>**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말뉴스TV **MBN**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598) 주식시장 팬데믹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재정신문인 월스트리트지는 수백만의 새로운 투자자가 팬데믹이 시작된 후 주식 투자에 열광하고 있다는 소식(Everyone's day trader now, Bored, isolated and out of work amid the pandemic, millions of Americans are chasing stock-market glory-and bragging about it online, Michael Wursthorn, Mischa Duval and Gregory Zuckerman, WSJ, July 25, 2020)를 전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짐에 재미 삼아 혹은 단기로 돈을 벌기 위해 주식시장에 투자한다고 한다. 주위에 친지가 주식 투자로 돈 벌었다는 소문을 자주 접하면 무엇인가 손해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든다. 그리고 남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투자 결정한다. 자그마한 돈을 투자해서 순간적으로 불어나면 주식 투자 성공을 열심히 자랑하기도 한다.

주식 투자하면 투자자는 어느 회사에 투자할 것인가를 제일 먼저 고민한다. 어느 회사 주식이 대박으로 이어지는가를 열심히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나간 주식이 가격 차트도 열심히 살펴본다. 그리고 좋았던 시

점에 미리 투자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과거는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나이가 45살 정도가 되는 분들은 코닥(Kodak) 회사를 기억하고 있다. 1888년에 설립된 코닥은 1970년대 세계 필름 시장에서 약 90%의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위세가 당당했다. 그러나 디지털화 흐름에 적응하지 못해 경영난을 겪다가 2012년에 파산 보호를 신청한 것이다. 2년 후 파산 보험에선 벗어났지만, 필름 사업은 접고 2015년부터 원료의약품을 만들어 왔다.

코닥 회사의 주가는 7/27에 \$2.13이었는데 단 2일 후 7/29에는 \$60까지 도달했다. 이 시점 2,000%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정부가 의료장비 국산화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중국산 의료장비 의존도를 줄이겠다'라며 코닥의 제약사 변신에 \$765 million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거래량은 평소의 4배로 급작스럽게 늘어났다.

급등하던 주식이 내부자거래 의혹 등으로 금융당국(SEC)이 임원들의 주식거래와 주가 변동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행정부는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투자

자들이 대거 매도에 주가는 한순간에 \$10대로 폭락하고 현재 약 \$6에 거래되고 있다. 주식 대박(Rich Quick)을 기대하며 코닥 회사에 어느 시점에 투자했다면 그때마다 희비가 엇갈렸고 결국에는 투자손실로 이어진 것이다.

전기차 기업 테슬라(Tesla) 주식을 나누기 전 가격으로 \$2,200을 넘어서며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도요타를 제치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1위 자동차 회사에 등극한 것이다. 테슬라는 세계 최대 자동차 기업 12개의 시가총액 중 40%를 이상을 차지한다. 주가를 5대 1로 나눈다는 소식에도 주식가격이 6%나 상승했다. 실제 주식 가격에는 전혀 변동이 없는데도 말이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많은 투자자가 대박의 꿈을 꾸며 테슬라 주식에 투자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자동차 업계에는 환경 규제(Environmental Regulation)가 있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Emission)를 정부가 규제하고 있으며 자동차 회사는 정해진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배기가스가 나오는 자동차를

생산하면 규제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며 전기차 생산은 크레딧(Credit)을 받는다. 매년 배출하는 자동차 생산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테슬라 회사는 지난 2분기에 자동차 판매로는 실제로 \$324 million이 적자이다. 그러나 전기차 생산으로 모인 환경 크레딧(Environmental Credit)을 다른 자동차 회사에 \$428 million 어치 팔았다. 장부상으로 영업이익이 \$104 million이 된 것이다.

모든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전기차를 생산하기 시작하면 테슬라에서 크레딧을 살 이유가 없다. 또한, 환경 규제는 언제나 변할 수도 있다. 테슬라가 현재는 전기차 생산에 독점이라 말할 수 있지만, 경쟁은 앞으로 매우 치열해질 것이다.

내가 선택해서 투자한 회사가 제2의 Apple, Alphabet(Google), Netflix, Amazon이 되기를 희망하며 투자한다. 그러나 어떤 한 회사의 운명을 가늠하기는 매우 어렵다.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돈을 투자 전염병처럼 투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18세 풍월주風月主 춘추공春秋公(3)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김춘추는 문희(문명왕후)와 함께 둘째 딸이자 김유신의 부인이 된 지소공주智昭公主를 낳았다. 즉 지소공주는 외삼촌인 김유신에게 시집갔는데 당시 김유신의 나이 60세였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15세 풍월주 유신공주에서 다루었다.

다음은 김춘추의 막내딸 요석공주瑤石公主, 그녀는 원효대사의 부인이 되어 설총을 낳은 것으로 유명하다.

625년경 어느날, 서악西岳에 올라 경성京城이 큰 물로 가득한 것을 보고 불길하다고 생각하여, 비단치마 한폭으로 왕비가 될 꿈을 꿈으로 날려버린 보희, 그레도 '헛꿈'은 아니었는지 후일 보희도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부인(영창부인)이 되었다. 그리고 요석공주를 낳았다. 요석공주는 원효대사와 만나기 전에 이미 결혼하여 남편이 있었다. 그녀의 남편 김흠운金歙運은 655년에 조천성전투에서 전사하였다. 김흠운의 부모는 김달복과 김정희(김서현의 딸, 김유신의 동생)이다. 김흠운은 후일 688년 '흠들의 난'으로 처형된 김흠돌과 형제

이기도 하다. 김흠운은 8세 풍월주 문노의 휘하에서 무예를 익혔으며, 보국총정의 이름을 남기고 간 화랑도들의 전설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도 명예롭게 죽을 수 있는 화랑도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성장하였다. 그리고 655년 조천성 전투에서 백제군에 맞서 임전 무퇴의 정신으로 일전하다가 전사하였다. 요석공주와 김흠운은 딸 둘을 두었는데 둘째딸이 문무왕(김법민)의 장남 소명태자와 결혼했다. 하지만 소명이 일찍 죽었다, 그리고 소명의 동생 정명태자와 재혼하였다. 그 후 정명이 제31대 신문왕으로 즉위하니 그녀는 신목왕후가 되었다. 신문왕과 신목왕후의 장남이 효소왕이고 차남이 성덕왕이다.

한편 월성의 남쪽 복사꽃이 만발한 남도南桃에는 선남선녀의 화랑도와 유화遊花들이 무예도 익히고 자연을 벗삼아 호연지기를 펼치고 있었다. 그 중 빼어난 미모의 유화와 능률한 화랑이 상통하여 잉태를 하였는데 그들은 서로 그렇게 헤어졌다. 부모를 만나 허락을 받아서 결혼을 한다던 낭도는 그만 다음날 변방을 지키러 떠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유화는 14년을 기다렸다. 낭도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삼국사기 권48, 열전 설씨조에 나오는 '가실과 설씨녀'의 이야기는 아마도 이 설씨 유화의 이야기였을 가능성이 많다. 삼국사기에는 진평왕 시절, 아버지를 대신하여 변방으로 수자리를 가게되는 가실과 그의 사랑하는 연인 설씨녀는 거울을 반으로 쪼개어 가지고 있

으면서 3년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3년이 가도 가실은 돌아오질 않았다. 마침내 6년만에 돌아온 가실의 물결이 너무나 초라하여 알아보지 못하고 거울을 맞추어본 뒤, 가실인걸 알고 혼인하였다).

다시 화랑세기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설씨녀는 14년전 하루밤의 사랑으로 임신한 아이를 낳아서 혼자 기르며 어렵게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구리지(사다함의 아버지)가 그 마을을 지나가다가 동구밖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보고 범상치 않음을 알고 부모를 찾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고 있었다. 당시 설씨녀는 30살 가량이었다. 16세에 유화가 되어 좋은 낭도를 만나 사랑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14년이나 그 낭도를 기다리며 살고 있었다. 부모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라고 하였지만 설씨녀는 따르지 않고 홀로 살면서, 낭도의 성도 몰랐으니 자신의 성을 따라 아이의 이름은 설성이라고 하였다. 설씨녀는 비록 천복賤賤을 입고 가난하게 살고 있었지만 먼 지더미에 있는 백옥과 같은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래서 구리지가 통정을 하려고 했다. 그러자 설씨녀는 완강히 거부하며 그간 마을의 많은 젊은이들이 범하고자 했는데, 자신의 의지와 기개를 굴복시키지 못해 서로 경계하고 보호해 주어 오늘에 이르렀는데, 하루 아침에 그걸 허무르면 마을의 무리한 자들이 범하여 내일이면 어떤놈의 소유가 될지 모를 것이고, 그럼 우리 모자는 죽어야 된다면, 누구

인지는 모르지만 모자를 불쌍히 여겨 용서해 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자 구리지는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구리지의 부모는 비랑공과 벽화부인이다. 벽화는 비처왕의 후궁이었다가 500년 말경에 비처왕이 죽고 지증왕 즉위 후, 그의 아들 김원종, 후에 법흥왕,의 후궁이 되었다. 벽화가 비처왕의 후궁일때 비랑과 측간에서 상통하여 구리지를 낳았다). 그러자 설씨녀는 마음을 열었고 구리지의 첩이 되었다. 구리지는 그녀의 초막을 헐고 새집을 지었다. 그리고 그 동네를 향(幸)으로 봉하고 그 향을 '대행大幸'이라고 이름 지었다. 설씨녀의 아들 설성은 구리지의 신하가 되었다. 구리지는 그의 출신이 한미한 것을 염려하여 급간 설우휘의 가문에 소속 시키고 사지소(13등급, 원문에는 사소 자가 탈자 되었는데 지지로 끝나는 벼슬은 13등급 사지 밖에 없다)의 벼슬을 주었다. 구리지는 자주 출전을 하였는데 그사이 구리지의 부인 금진낭주는 설성과 사통을 하였다. 후일 구리지가 전장에서 전사하자 그들은 부부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7세 풍월주가 된 설원랑(설화랑)이 태어났다. 설화랑이 준화와 혼인하여 장남 음(陰)과 차남 인피(仍皮, 적녀 정금낭주淨金娘主를 낳았다. 인피가 설담날을 낳았으며, 담날은 조씨부인과 혼인하여 원효대사(속명 설사薛思)를 낳았다. 설담날은 629년 '낭비성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그리고 원효가 김춘추의 셋째딸 요석공주와 혼인하여 설총을 낳았다.



# 안녕하세요. 2020년 센서스 인구 조사원입니다.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에 안전하고,  
간단하게 응답하도록 돕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저는 올해 중요한 일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지역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한 후,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응답을 돕기 위해 각 가정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10년마다,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집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센서스 인구조사 결과를 통해 각 지역사회의 요구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응답은 중요합니다.  
인터넷, 전화, 우편 또는 센서스 인구 조사원을 통해 응답하세요.

**2020CENSUS.GOV/ko**  
**또는 전화 844-392-2020으로**  
**센서스 인구조사에 응답하세요.**

**우리가**  
**만드는 미래**  
**지금 시작하십시오 >**

이 광고는 미국 인구조사국 자금으로 제공됩니다

United States®  
**Census**  
**2020**



# NAMU • 나무

국제기능올림픽 목재분야 금메달리스트  
대통령 훈장 수훈/15년 이상의 경력

##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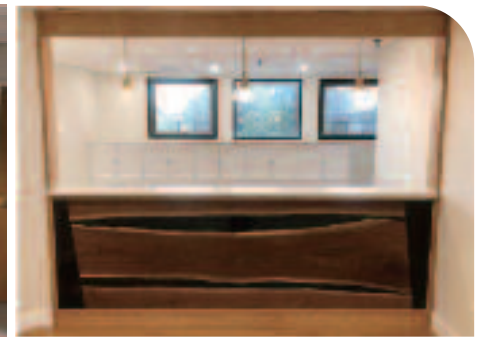
- 주방, 욕실, 방, 베이스먼트 리모델링
- 집, 상점 레노베이션
- 커스텀 캐비닛, 바닥, 데크
- 원목 테이블, 가구

## WHY NAMU

- ✓ 정직하고 디테일한 견적
- ✓ 고객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진행
- ✓ 철저한 시간 약속과 빠른 공사



BEFORE



AFTER



무료  
견적상담

www.namuma.com  
info@namuma.com / 617-775-4771  
58 Pulaski St, Peabody, MA 01960

견적부터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양심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MA 전지역, NH 일부지역 공사)

# 국궁 양궁 연습

## 국궁 양궁 연습에 초대합니다

코비드 19로 위축된 우리 청소년들과 가족들을 Open Air 로 초대 합니다.  
현재는 Session 마다 최대 5 가족만 함께 활 쏘며 기술을 배우고 연마합니다.  
서로 3 meter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며 활을 쏘며, 활과 화살을 사용 전후  
소독해서 사용합니다.

미리 전화나 이메일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6월 13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오후에 강습과 연습 시간을 정했습니다.

오후 2:00- 3:30, 3:30-5:00 (토1, 토2, 일1, 일2)  
원하는 Session을 예약하세요. 활과 화살을 제공하며,  
강습과 연습은 모두 무료입니다.

10분전 까지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장소: 596 Hooksett Rd, Auburn NH 03032  
예약: taewon.jin@Gmail.com, 603-205-6679  
주관: KAYP Youth program, director Taewon Jin

